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

K-컬처와 함께하는 관광매력국가

2022. 12. 12.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I . 추진배경	1
II . 평가 및 현황진단	3
III . 비전 및 목표	8
IV . 세부 추진과제	10
1. [전략1] 세계인이 찾는 관광매력국가 실현	10
2. [전략2] 현장과 함께 만드는 관광산업 혁신	22
3. [전략3]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국내여행	33
4. [전략4] 더 자주 더 오래 머무는 지역관광시대 구현	40
V . 추진 일정	50
[붙임] 부처별 추진계획	55

I. 추진 배경

□ 코로나 이후 '관광은 한국', 5대 수출산업 위상 회복 필요

- 코로나19 발발 이전인 '19년 우리나라 관광산업은 외국인 관광객 1,750만명으로 역대 최고치 달성, 관광수출 약 207억 달러로 서비스산업 중 유일한 5대 수출산업*에 해당할 정도로 성장

* 수출액('19년, 억불): ①반도체(939) ②자동차(430) ③석유제품(407) ④자동차부품(225) 순

- 우리나라는 117개 관광발전지수 평가(WEF, 2021) 대상 국가 중 역대 최고 15위 기록,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잠재력 증명
- 일자리 창출 효과와 성장잠재력이 월등한 관광산업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침체에서 벗어나 복원과 확장 필요

* 취업유발계수(2019) : 관광산업 14.7 > 음식료품 13.1 > 건설 11.1 > 컴퓨터·전자 3.6

□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증진에 기여

- 관광은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여가활동이자, 코로나19로 인해 여행이 제한된 상황에서 기본적인 욕구임을 인식

*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 1위 관광활동(67.7%) ('21, 통계청 사회조사)

- 국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관광환경 필요

내가 생각하는 여행(또는 관광)은 ○○○이다.

“마음의 힐링을 얻을 수 있는 과정”

“사는 지역을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것”

“삶의 일부 안에 있는 행복과 즐거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

출처 : 2022 대국민 설문조사

□ 추진 근거

- 「관광기본법」 제3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에 따라 계획 수립('23~'27년)

* (제3조 제1항) 정부는 ...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추진 경과

□ 국정과제

- 국정과제 61.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실천과제	1	관광업계 코로나19 회복 및 관광진흥체계 정비
	2	누구나 누리는 여행환경 조성
	3	2027 외국인 관광객 3천만 시대 개막
	4	현장 목소리와 함께하는 지역별 특화 관광자원 개발
	5	스마트 관광산업 및 인재 양성

□ 주요 경과

- 관광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제별 **전문가 포럼 7회** ('22.2~5월)
 - * **(주제)** ①총론(2.10) ②국민관광(2.24) ③관광산업(디지털전환 등)(3.10) ④국제관광(3.24) ⑤지역관광(4.28) ⑥규제, 고용 등(5.12) ⑦탄소중립 및 정책 기반(5.26)
- **'관광진흥기본계획' 수립 연구** ('22.4월~/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관광업계 업종별 간담회 24회** ('22.9월~/관광정책국장, 관광산업정책관)
- **'관광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속토론회 4회** ('22.10~11월/2차관 주제)
 - * 1회(10.27) : '방한관광 재도약', 2회(11.2) : '지역관광 활력 제고'
3회(11.16) : '관광산업 인력난 해소', 4회(11.23) : '관광산업 제도개선'
- **장·차관 주제 관광 관계자 간담회 개최**
 - * ①관광업계 간담회('22.6.22/장관 주제) ②시도관광국장회의('22.10.6/2차관 주제), ③관광업계 정책간담회('22.10.13/2차관 주제) 등 수시 개최
- **관계부처 의견수렴**('22.11.30, 2차관 주제 국장급 참여/수시 실무 협의)

Ⅱ. 평가 및 현황진단

1 평가

* 제5차 관광진흥기본계획('18~'22) 추진 기간 중심으로 평가

□ 성과

- (외국인관광객 방문 확대) '17년 이후 외국인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19년 1,750만명으로 역대 최고 달성
 - 관광수입이 '17년 133억 달러에서 '19년 207억 달러로 대폭 확대 되면서, 관광수지 적자 규모 개선
 - '17~'19년간 외래객 수는 연 15% 가량 증가한 반면, 우리 국민 해외 여행 증가율은 점차 둔화('17년 18.4% → '18년 8.3% → '19년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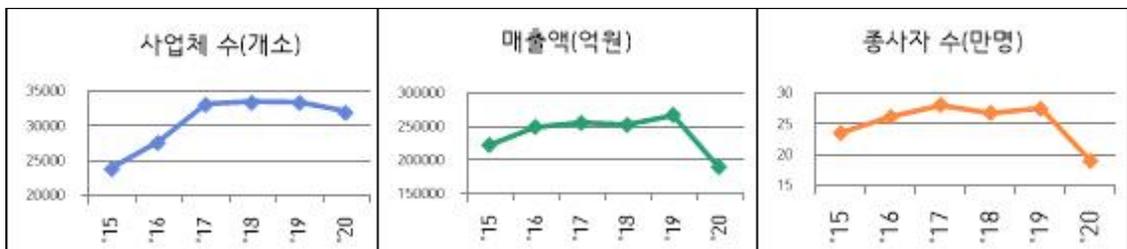
< 국제관광 관련 주요 통계 >

(단위: 만명, 억불, %)

연도	방한 외래관광객		국민 해외관광객		관광수지 (A-B)	관광수입(A)		관광지출(B)	
	인 원	증감률	인 원	증감률		금 액	증감률	금 액	증감률
2017	1,334	△22.7	2,650	18.4	△147	133	△20.8	280	18.0
2018	1,535	15.1	2,870	8.3	△131	185	39.2	315	12.8
2019	1,750	14.0	2,871	0.1	△85	207	12.4	293	△7.2

- (관광산업 성장) 관광기업 성장 사다리 마련 등을 통해 '16년 대비 '19년 관광사업체 수 20% 증가를 비롯해 매출액, 종사자 등이 증가를 보이며 관광산업 기반의 점진적 확대

* '16년→'19년 사업체수 성장률 20.3%, 매출액 성장률 7.1%, 종사자 증가율 5.5%



- (지역관광활성화 기반 구축) 3대문화권('10~'21), 중부내륙권('13~'22) 광역관광개발 등 매력적인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관광자원개발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

□ 한계

- (높은 중국시장 의존도) 중국* 단일시장 중심의 국제관광 시장 양적 확대로, 정치·사회적 외부 요인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 가중**

* 2019년 역대 최고치인 외국인 관광객 1,750만명 중 34%인 602만명이 중국 관광객

** 2016년 1,724만명(중국 807만명)에서 2017년 중국 관광객 급감(417만명)으로 전체 외국인 관광객 1,334만명으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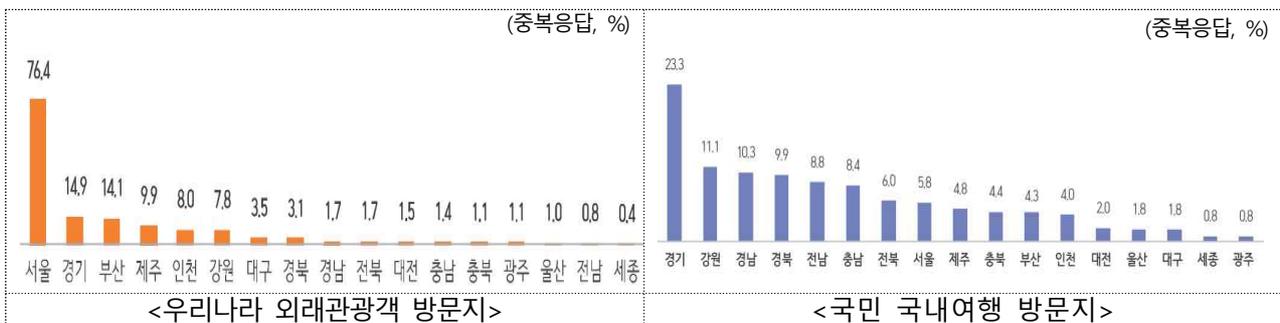
⇒ 시장의 다변화를 바탕으로 외래객 양적 회복과 질적 제고 추진

- (영세기업 위주 산업구조) 전통적인 관광업계는 영세기업 비중이 높아 코로나19,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 등 환경변화에 대응 취약

* 매출액 1억원 미만인 사업체가 전체의 48.9%, 종사자 10인 미만 사업체가 전체의 82% (2019 관광사업체 조사)

⇒ 고부가 관광시장 육성,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혁신적인 강소기업형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

- (관광객 지역 편중) 국내외 여행객 모두 일부 지역으로 방문이 편중되어 관광 활성화에 있어서 지역 간 불균형 발생



- 지역 특색을 고려하지 않은 하드웨어 중심의 지자체별 개발 경쟁으로, 유사 관광자원 증가 및 경쟁력 저하 (출렁다리,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

* (일본 사례) 외국인 숙박객 3대 도시권 62.7%, 지방 3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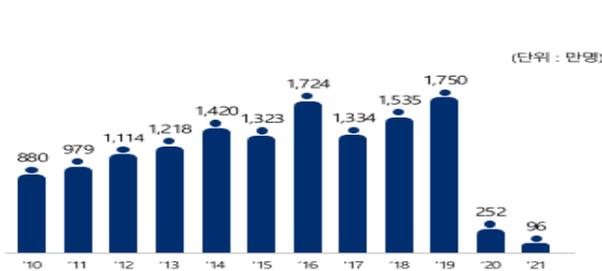
⇒ 스토리텔링 기반으로 어디에도 없는 관광자원 조성 및 국내외 관광객 지역확산을 통한 관광의 지속 성장 추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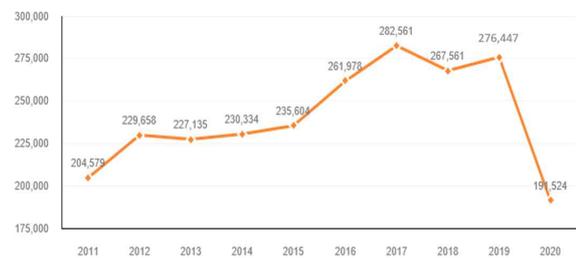
현황진단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통과 침체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이동'과 '대면'을 기본으로 하는 관광 산업은 극심한 고통과 침체를 겪게 됨
- 2021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96만 명으로, 역대 최고 규모인 2019년 1,750만 명 대비 6% 수준으로 격감
- 관광사업체 매출액은 2019년 26조 8,138억 원에서 2020년 8조 2,024억 원으로(△69.4%), 관광산업 종사자 수는 2019년 276,447명에서 2020년 191,524명으로(△30.7%) 급격히 감소



<외국인 관광객 수('10~'21년)>



<관광산업 종사자 수('10~'20년)>

⇒ 관광산업 고통과 침체의 위기를 복원과 확장의 기회로 삼아 관광대국으로의 도약 추진

□ 국제관광의 회복과 경쟁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전환기 도래

- 국제관광은 극심한 침체에서 벗어나 2022년부터 회복 양상*, 세계 각국도 관광산업 재도약 추진 중으로 전 세계적인 경쟁 국면 돌입

* '22년 1~10월 외국인 관광객 : 220만 명('21년 동기대비 181% 증가)

- 출입국이 정상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일찍 회복된 국내여행에 비해 그동안 제한됐던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향후 1년 내 해외여행 의사가 있다" 응답 88.16% (2022, 한국관광공사)

○ 전 세계인이 K-컬처와 한류에 열광하게 되며, 한국방문의 주요 이유*로 K-컬처가 부상하는 등 한국 여행관심도 증가 추세

* 한국방문 이유 1순위 문화체험즐길거리 (K-pop, 한류 관련 포함) (2021 잠재방한여행자조사)
음식, 뷰티, 음악 등 한국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호감도 상승(2022 해외한류실태조사)

- 환율 상승이 상대적으로 관광산업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외국인 관광객 방문을 견인할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국제관광 기반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범부처적 방안 마련 시급

⇒ K-컬처와 K-관광을 융합하는 공세적 전략으로, 국제관광 무대 주도 '한국은 가고 싶은 나라, 경험하고 싶은 나라'라는 이미지 전파각인

□ 헝클어진 관광산업 생태계 재정비

○ 관광수요 회복으로 산업 또한 회복 추세*를 보이나, 유능한 인력 유출**, 관광수용력 약화 등으로 관광산업 생태계가 헝클어진 상황

* 22년 9월 관광여행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88.6으로, '19년 동월 대비 23.7% 감소, '21년 동월 대비 88.6% 증가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30대 미만 고용이 42.7% 감소한 것으로 추정(한국 문화관광연구원, 2022)

-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기업들의 경영 부담 완화, 인력난 해소 및 국내외 관광수요 촉진 등이 복합적으로 요구

○ 비대면 환경이 친숙해지면서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 요구가 증가하고, 온라인 여행사(OTA) 중심의 플랫폼 영향력 확대*

* 여행예약 경로 : OTA 43.4%, 포털사이트·온라인쇼핑몰 26.5% 등 (2022, 여행신문)

- 관광기업으로서는 빅데이터, AI 등 첨단기술 적용 필요성이 증대

⇒ 헝클어진 관광생태계 복원을 위해 인력난 해소, 규제개선 등 치밀하고 현장감 있는 관광업계 지원대책 마련

□ 국민 여행수요 충족으로 국내관광 촉진

- 2020년 대비 2021년 국내여행 경험률, 여행 횟수, 여행 일수, 여행 지출액 등 국내관광 관련 지표 모두 개선



- 지역소멸*, 경제침체 등에 대응하여 각 지자체는 관광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 중

* 정주인구 1명 감소에 따른 소비 감소를 대체하기 위해 관광객 약 41명 필요 (인구감소지역 관광객 유입의 경제효과 분석, 202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체류형·살아보기형 여행', '반려동물 동반여행', '치유·아웃도어(캠핑)' 등 최근 국내여행 트렌드 변화에 주목 필요

⇒ **민관 협업에 기반한 국민들의 국내여행 수요 촉진**
 ⇒ **변화하는 여행수요에 대응한 독창적인 관광상품 소재 개발과 홍보를 뒷받침해 지역관광의 활기를 불어넣는 지원방안 강화**

10대 관광트렌드 (2023~2025)

	트렌드	키워드
1	K-컬처 시대, 방한여행의 스펙트럼 확장	K-컬처/한류/MZ세대
2	초개인화 시대, 여행경험의 나노화	보상수요/양극화/다양화/개별화
3	디지털 전환 시대, 신(新) 융합 관광 확대	비대면/디지털/플랫폼/기술융합
4	창조의 시대, 스스로 성장하는 지역관광	청년/지역주민/지역주도/순순환
5	뉴노멀 시대, 새로운 여행 워케이션 확산	원격근무/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6	탈경계 시대, 일상으로 스며든 관광	생활밀착형 관광/근거리 여행
7	기후변화 시대, 탄소중립 여행의 부상	탄소중립/친환경/ESG경영
8	위기 회복 시대, 웰니스 치유 여행 가속화	혼잡회피/치유/웰니스/아웃도어
9	관광할 권리, 모두가 즐기는 여행 실현	관광약자/예약 없는 여행/반려동물
10	로컬의 시대, 지역관광의 진화	독창성/고유성/고부가가치

(관광트렌드 분석 및 전망, 202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Ⅲ. 비전 및 목표

□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재도약의 청사진

기존	평가와 진단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19로 관광산업 침체	관광산업에 활기를 불어넣는 비전 전환	K-컬처와 함께하는 관광매력국가
중국, 단일시장 중심의 국제관광 양적 확대	편중된 시장구조로 외부 요인에 취약	전 세계 새로운 소비층 확보를 통한 다변화 부가가치 높은 품격있는 관광 육성
문화·관광 분야 독립적 진흥정책	K-컬처에 대한 전 세계인의 열광과 관심, 관광으로 이어갈 필요	관광과 K-컬처의 독보적·매력적 융합으로 시너지 극대화
하드웨어 중심 관광자원 개발로 관광활성화 기반 마련	유사·중복 자원으로 인해 경쟁력 저하 및 관광수요 변화에 대응 부족	스토리텔링으로 어디에도 없는 한국만의 관광콘텐츠 육성 강화
수도권에 편중된 국내외 관광객	관광의 지속적 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에 한계	전국 구석구석으로 확산 다양한 지역으로 재방문 유도
개별 업종별 지원· 전통기업과 창업기업의 이원화된 정책	새로운 산업과 사업모델 확산으로 관광산업 성장동력 마련 필요	타 산업 연계 협력을 통한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 비전과 목표

비전	K-컬처와 함께하는 관광매력국가
-----------	--------------------------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은 한국' K-관광의 국제관광 주도 ○ 헝클어진 관광생태계 회복과 확장을 통한 관광산업 혁신 ○ 누구나 어디든 여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국내여행 촉진 ○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스토리텔링 기반 지역관광자원 발굴
-----------	--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관광객 수 '19년 : 1,750만 명 → '27년 : 3,000만 명 ○ 관광수입 '19년 : 207억 불 → '27년 : 300억 불 ○ 1인당 국내 여행 일수 '19년 : 12.9일 → '27년 : 15일 ○ 국내여행 지출액 '19년 : 44.2조 원 → '27년 : 50조 원
-----------	---

전략	추진 과제
세계인이 찾는 관광매력국가 실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K-관광 매력의 대대적 확산으로 시장 다변화 2. 관광과 K-컬처의 독보적·매력적 융합 3. 입국부터 출국까지 편리한 서비스 제공
현장과 함께 만드는 관광산업 혁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규제 혁신을 통한 재도약 지원 2. 미래 관광산업 선도기반 구축 3. 고성장 융복합 시장으로 영역 확장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국내관광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여행 수요 촉진 2. 누구나 누리는 지속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3.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관광안전 확립
더 자주 더 오래 머무는 지역관광시대 구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체류형 관광모델 개발로 지역경제 활력 강화 2. 독창적 매력이 있는 지역 관광자원 개발 3. 다양하고 특색 있는 관광콘텐츠 확충

IV. 세부 추진과제

전략1 세계인이 찾는 관광매력 국가 실현

1-1 K-관광 매력의 대대적 확산으로 시장 다변화

◇ K-컬처에 대한 세계적 인지도와 호감도를 한국관광 수요로 전환, 국제관광수요 조기 선점에 국내외 자원과 범국가적 역량 결집

□ '한국방문의 해' 계기 관광 조기 회복 추진

○ (K-컬처 연계 한국관광매력 확산) 코로나19 기간 중 세계인에게 더욱 친숙해진 K-컬처를 활용하여 공세적으로 K-관광 각인

- (메가 이벤트) '한국방문의 해' 기념 민관 한류스타 콘서트 등을 연계하여 관광 붐업 분위기 조성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

* ▲K-pop 아이돌 출연 메가콘서트,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2024 강원동계 청소년올림픽,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이벤트, ▲INK 콘서트, 원아시아페스티벌

- (네버엔딩 K-컬처) 전국의 대표적인 이벤트 '100선' 선정, 365일 끝없는 K-컬처 릴레이 체험콘텐츠 제공으로 한국관광 체험의 확장*

* K-컬처 이벤트 100선 연계 공공·민간분야 맞춤형 관광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OTA, VISIT KOREA 등을 통한 집중 프로모션, 웰니스·의료관광 등과 상품개발 협업, 국제영화제, 문화예술행사 등을 통해 K-컬처 팬 한국방문 유도

○ (범국가적 환영) 항공·숙박·쇼핑(면세)·음식 등 분야별 관계부처·지자체 공동마케팅*, 관광업계 참여 통한 민관협력 추진

* 코리아그랜드세일(1~2월 문체부), 동행축제(9월 중기부), 코리아세일페스타(11월 산업부) 연계

■ "네버엔딩 K-컬처" 구성 이벤트 예시

- ▶ 예술 : 키아프·프리즈 서울(9월), 서울국제공연예술제(10월)
- ▶ 문화 : 서울국제도서전(6월), 궁중문화축전(5월), 안동탈춤축제(9-10월)
- ▶ 콘텐츠 : 부산 지스타(게임, 11월), 전주·부산국제영화제(5,10월), 서울국제뮤직페어(10월)
- ▶ 스포츠 : 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5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1월)
- ▶ 환경 :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4~10월), 보령머드축제(7월)
- ▶ 음식 : 강릉커피축제(10월), 광주세계김치축제(10월)
- ▶ 기타 : 세계잼버리대회(전북, 8월), 진주유등축제(10월)



- (K-관광 국제로드쇼) 전 세계 5대 권역별 주요도시에서 K-컬처와 함께 한국관광 매력을 각인시킬 현지 소비자 참여형 홍보행사 개최
 - '23년 15개 대도시(도쿄, 홍콩, 뉴욕 등)부터 '25년까지 총 50개 도시(권역별 2선 도시 확대) 개최, '한국방문의 해' 집중 홍보 및 네트워크 재건 지원
 - (B2C) 한국문화 체험 행사(음식, 뷰티, 공예), 지자체 참여 지역관광 쇼케이스, K-컬처 경연, 개별여행객 한국여행 현장 예약 캠페인
 - (B2B) 양국 관광업계 간 사업상담회(트래블마트), 유력 미디어 대상 신규 한국관광 콘텐츠 소개, 현지 업계 맞춤형 공동마케팅 강화

□ 인바운드 조속 복원 및 시장 다변화

- (인바운드 2~3위 주력시장 집중 복원) 일본·대만 시장 한국관광 본격 재개 특별 캠페인 추진, 재운항 항공노선 중심 신규상품 개발 확대
 - (일본) 후쿠오카-부산 등 지역노선 복원 계기 여행업계와 함께하는 순회 세일즈, 현지 한류 20주년 기념 재방문 캠페인('23.1분기~)
 - (대만) 스키·봄꽃 테마 방문수요 기반 항공편 정상화, 지역관광 선호* 경향에 맞춰 K-컬처 행사 계기 대구·무안 등 지역 국제선 확대('24년~)

* 대만, '19년 대구·무안공항 외국인 입국자 규모 1위, 김해·청주공항 2위
- (동남아 시장 육성) '한-태 상호방문의 해'('23-24년), 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23년), 싱가포르 수교 50주년('25년) 등 계기 집중 육성
 - 마이스 단체관광,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 지방공항 무비자 입국(제주·양양('22.6월~)/무안('23년~)) 활용 프리미엄 상품 비중 확대
 - 개별관광객 체험 중심 테마상품(골프·트레킹·캠핑·뷰티 등), 현지 금융사 고객별 소비DB 활용 맞춤형 상품개발로 재방문을 제고('23년~)
- (중국 관광 재개 대비) '첫 해외여행은 한국'이 되도록 비자 할인, 대규모 관광유치단 파견 등 보복적 여행수요 흡수 마케팅('23.1분기~)
 - 씨트립(OTA) 등 대형 여행플랫폼 활용 개별관광객 유치 확대, e-스포츠·웰니스 등 MZ세대·부유층 신규 수요 개척('23년~)

- (구미주·중동 개척) 1주 이상 머무르는 여행객 대상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 장기체류 유도, 아시아 주변 목적지(일본) 공동 상품화
 - (구미주) 고유 역사·전통자원 활용 비건, 시니어, 참전용사 가족(‘23년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 유치, 아시아 모국방문 여행객 대상 환승관광 상품개발
 - * 비건인구 대상 ‘템플스테이+사찰음식+전통건축투어’, 액티브 시니어 대상 ‘명인과의 교육투어+맞춤형 스파’, 참전용사 가족 대상 ‘한옥스테이+DMZ 평화루트 투어’ 등
 - (중동) 현지 프리미엄 관광 컨설턴트 육성(‘22년 15명 → ‘27년 90명)으로 의료·웰니스 등 고급시장 개척, 한·카타르 수교 40주년(‘24년) 계기 집중 마케팅
 - * 한국관광 캠페인 추진 및 현지 주요 10개 국제관광박람회 한국관 운영

□ 미래세대 타깃 한국관광 브랜드 가치 확산

- (해외광고 화제성 확보) 인기 한국 드라마·영화·예능 속 소재 활용 한국관광 광고 제작, 주요시장 송출 확대(‘23년 19개국 → ‘27년 30개국)
 - 서울 하이커(HiKR) 및 방콕 등 국내외 5개 도시(‘23년)에 홍보영상 속 K-컬처 소재 등장 거점 공간 조성, 관광객 직접 방문 유도
- (메타버스 한국관광 영토 확장) 네이버 ‘제페토’, 중국 ‘시랑’ 등 메타버스 플랫폼 내 K-pop·미식 등 MZ세대 취향 한국여행 체험공간 조성(‘22.12월~)
 - (동남아) ‘제페토’ 내 한국 랜드마크 활용 테마 맵 구축, 계절성 이벤트 등 개최로 동남아 젊은 세대 방문 촉진(‘트래블 헌터-K’/‘22.11월~)
 - (중국) 중국 대표 메타버스 플랫폼 ‘시랑’ 내 K-컬처를 주제로 한국여행 체험공간 “한유세계(韓游世界, K-LAND)” 조성(‘22.12월~)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 방한관광 마케팅>

■ 「트래블 헌터-K」 (부제 : 한국여행 히든 스팟을 찾아서)

- ‘제페토’ 유저들이 트래블 헌터가 되어 7개 테마월드(자연/미식/해양/축제/사진명소/한국 문화/공연)를 모험하고 한국행 티켓과 한국 굿즈가 담긴 K-BOX를 차지하는 미션형 콘텐츠



부산 해변열차



K-소울로드



K-미식투어

1-2

관광과 K-컬처의 독보적 · 매력적 융합

- ◇ 세계인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K-컬처와 관광의 융합으로 한국의 정수를 경험할 수 있는 고품격 콘텐츠 확충
- ◇ 다시 찾고 싶은 한국의 이미지 강화를 위해 특별하고 희소한 경험 발굴

□ 예술자원 활용 K-아트 관광콘텐츠 확대

- (시각예술) 세계 3대 아트페어인 ‘프리즈’의 한국 진출(‘22년~) 계기, ‘신홍 글로벌 시각예술 허브’로서 예술관광 브랜드 구축
 - 미술·공예주간 외국인 특화 아트투어 콘텐츠 확충, 한국관광 관심 시장(홍콩, 대만 등) 현지 여행업계 공동 K-아트 관광상품 개발
- * 키아프x프리즈 아트페어, 이건의 컬렉션, 청와대 문화예술복합공간 등 코로나19 이후 한국의 새로운 시각예술자원 종합 홍보

■ 국제적인 관광콘텐츠로 발전 가능한 대표 시각예술자원(예시)



키아프x프리즈 아트페어



이건의 컬렉션



예술주간(미술/공예)

- (공연예술) 대표축제 ‘웰컴 대학로’를 통해 한국의 브로드웨이 조성, 대학로 지역상권 및 공연업계 동반회복 시너지 극대화
 - 외국인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글로벌 공연관광 콘텐츠 확대*, 대학로 명소와 주요 공연장, 골목 도보해설 투어 등 운영
- * 세계 주요 공연 축제(프랑스 아비뇽, 영국 에든버러 등) 계기 한국공연관광 홍보 및 관련 작품 상연
- 국내·외 관련 축제 간 연계*, 축제 기간 내 거리공연 상시화 및 공연관광 디지털 전환(자막번역 및 제공 서비스 기반 구축) 추진(‘23년~)
- * 영국 에든버러는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약 43만명) 전후 페스티벌 프린지(약 301만명), 인터내셔널 아트 페스티벌(약 30만명) 등을 통해 공연관광객 유치(‘19년)

□ 청와대 역사문화관광 클러스터

- (청와대 경내 관광랜드마크화) '원형'을 보존한 상태로 문화·예술·역사·전통공간·자연이 살아 숨 쉬는 청와대 구현, 관광자원화
 - 대통령 역사 및 문화유적 조사·복원, 청와대 소장 미술품 기획전시, 수목원 탐방 등 문화예술역사 복합 공간으로 운영
- (청와대 역사문화관광 클러스터) 청와대를 중심으로 경복궁, 광화문, 주변 여러 미술관·박물관, 북촌·서촌 지역에서 생산되는 매력과 경쟁력을 묶는 관광클러스터 조성, 청와대 개방 파급효과 확대

* (동)박물관, 미술관, (서)통인동·서촌 문화거리, (남)경복궁, 광화문, (북)청와대, 북촌 등

- 클러스터 주요 자원들이 '스토리 텔링'으로 연결되도록 집약, 테마형* 관광상품으로 여행자 관심도 강화

* (문화예술) 청와대 공연·전시+현대미술관+북촌+인사동 갤러리+세종문화회관
 (자연생태) 녹지원과 대정원+북악산+남산
 (역사전통) 청와대 본관과 관저+북촌 한옥마을+고궁박물관+경복궁+통인시장

- '청와대 역사문화주간' 등 운영(인근 자원 연계) 통해 통합 마케팅 추진

[청와대 개방 행사]



■ 해외사례 : 스미소니언-내셔널 몰(워싱턴DC)

- ▲허시혼박물관, ▲스미소니언 미국 미술관, ▲국립자연사박물관, ▲국립항공우주박물관, ▲미국역사박물관, ▲아서M새클러 갤러리, ▲프리어갤러리 등 박물관, 미술관 밀집



- (종합관광안내센터 사랑채) 청와대 사랑채를 한국 관광정보 및 청와대 해설, 여행자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종합 관광안내센터화*

* 수어·점자·외국어 정보 안내, 이동경로 개선, 관광해설 등 제약 없는 여행 편의 제공

□ 팬덤경제 기반 K-콘텐츠 관광 모델화

- (장르별 모델) 전국의 한류콘텐츠 관련 이벤트·거점을 연계한 새로운 콘텐츠 확충으로 K-컬처 팬덤을 한국관광 마니아층으로 육성
 - ※ 2021 장르별 한국문화콘텐츠 소비 비중 상위국가 (2022 해외한류실태조사) : [음악] 베트남(38.5%), [드라마] 말레이시아(39.5%), [영화] UAE(40.5%), [게임] 인도(37.7%) 등
- (케이팝) 전국 각지에서 연중 개최되는 케이팝 축제* 계기 전세기 활용 방문상품 개발, 한국에 방문한 팬층 대상 재방문 마케팅
 - * 드림콘서트(6월), 지역 케이팝 콘서트(10월), 부산원아시아 페스티벌(10월), 인디뮤직페스타(11월) 등
- (영상미디어) ▲드라마·영화 축제 및 로케이션 활용 테마코스 개발, ▲공개방송투어, ▲실감콘텐츠 체험공간*의 글로벌 랜드마크화 추진
 - * 하이커 그라운드(HiKR Ground), 실감콘텐츠 체험관(광화문·인천공항 등), 아르떼뮤지엄 등 민간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관
- (이스포츠) 국제대항전* 연계 관광 홍보, 훈련시설 및 경기장(부산·광주·대전·진주) 기반 '글로벌 캠프' 등 선수단·애호층 대상 방한 프로그램 발굴
 - * '국제 이스포츠 페스티벌'(22.12월), '한중일 이스포츠 대회'(3국 순회 개최) 등
- (민관 협력) 한류 유관기관(관광공사, 재외문화원, 콘텐츠진흥원, 국제문화교류진흥원 등)·지자체·민간의 한류관심층 유치 협업체계 강화*
 - * ▲인바운드 마케팅 타겟시장 설정, ▲연계 관광상품 개발·판촉 지원, ▲해외 한류 커뮤니티 및 기관별 해외 네트워크 활용 홍보협력 등
- 한류콘텐츠를 관광서비스화하는 우수 벤처기업 발굴, 지역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공동 프로젝트 추진

■ 한류콘텐츠 활용 관광벤처기업 사례 - '글림미디어'



- 빅데이터 투표 기반 글로벌 케이팝 팬덤 콘텐츠 플랫폼인 '스타플레이' 운영 중(145개국, 720만 유저 보유)
- K-POP 팬덤 니즈 맞춤형 관광상품 판매
- 제품판매-콘서트-팬미팅-한류투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운영

□ 개별화되는 취향 맞춤형 테마관광 콘텐츠 발굴

- (스포츠 관광) 아마추어 동호회 대상 방한 훈련 환경 조성,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등 국제행사 계기 연계 관광상품 개발
 - (아웃도어) 사계절 체험 콘텐츠(등산·트래킹·서핑·자전거·스키* 등) 발굴
 - * 근거리 동남아 국가 타겟 동계스포츠 축제(Winter Korea Festival) 개최로 관광매력 제고
 - (태권도) 태권도 명상 등 체험형 '태권스테이' 운영, '국제태권도대회' 개최, 해외 태권도 지도자 초청연수 등 종주국 위상 활용 관광활성화
 - * 전세계 태권도 수련층 1.5억명 이상으로 추산, 세계태권도연맹 회원국 212개국(22년 기준)
- (음식여행) 권역별·주제별 미식 콘텐츠* 발굴, 기념품 유통체계 구축 및 외국인 관광객의 다양한 식문화를 고려한 맞춤형 정보 제공**
 - * ▲드라마·영화에 소개된 음식, ▲한국 길거리 음식(전통시장), ▲사찰 연계 비건음식 등
 - ** 메뉴판 외국어 번역서비스와 한국 대표 음식관광 콘텐츠 융합(민간협업), 동남아·중동 지역 문화권별 음식 관련 특화정보 수집 및 매뉴얼화

■ 음식관광 기념품 발굴·유통(민간협업)



영양 산채밥 (청도)



다시마 두부과자 (완도)



약돌 돼지 육포 (문경)

□ 한국관광의 프리미엄화

- (고급 문화체험) 한옥 호텔, 고급 한식, 명인·명사와의 만남* 등 한국 고유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희소성 있는 콘텐츠 발굴
 - * (예시) 김용세의 신평양조장, 이효재의 효재보자기, 김시영의 노고갤러리(흑자) 등
 - 문화시설과 연계한 다도체험·국악공연 감상과 같은 **고궁, 박물관, 미술관 내 고급관광 특별문화체험 콘텐츠** 개발
 - 시장별 방한지출 의향이 높은 소비층 대상 **고급관광 상품화** 추진

- (골프관광 활성화) 골프선수 및 대회, 골프 아카데미 등 경쟁력 있는 한국 골프 콘텐츠를 활용한 고급 관광상품 개발
 - (프로골퍼 연계) 한국 여자 프로골퍼 인지도를 바탕으로 골프 특화 프로그램(원포인트 레슨, 공동티샷 등) 포함 관광객 유치 추진
 - (관람·체험) 한국 내 개최 골프 대회* 관람, 체험(라운딩)과 연계한 특별 고급 관광상품 개발
 - * (예) ▲ (미국 여자프로골프투어(LPGA))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2022(원주, 정규대회)
 - ▲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KLPGA)) KLPGA 선수권대회, 한국여자오픈, KB금융 스타챔피언십,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한화클래식 등
 - (동호회·교육) 해외 골프동호회 연계 관광상품 개발, 기업도시 내 외국인 전문 골프 교육 기관 설립(프로선수 아카데미 등) 등
 - (관광단지 내 골프장 유치 지원) 관광단지* 지정 시 지자체 협력을 통해 다양한 관광시설 도입을 전제로 한 골프장 유치 적극 지원
 - * 전국 지정 관광단지 45개소(22.11월 기준) 중 골프장을 포함한 관광단지는 26개소(57.7%)
- (고급관광 기반조성) 인천공항 내 개인 전용기(Private Jet) 전용 터미널 설치 추진
 - (네트워크 조성) 고급관광 국제 네트워크* 연계강화, 국내·외 박람회 참가 및 개최, 고급관광 전문여행사 육성
 - * (예) Virtuoso(50개국 2만명, 북미 590개 여행사), Traveller Made(70개국 469여개 회원사) 등

■ 고급관광상품 사례

- 뉴욕 메트로폴리탄(The Met) 회원 박물관 특화 상품 : 16명이 8일간 한국 내 주요 박물관 및 유네스코 세계유산 방문*(1인 9,599 미국달러/항공권 불포함)
 -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경주박물관, 창덕궁, 양동마을 등
- 미국 고급관광객 대상 “Private Jet Tour” 상품 : 전체 일정(24일) 중 한국 방문(5일) 및 전통문화프로그램·음식·스파 체험 등(1인 165,000 미국달러/전체일정 기준)

1-3

입국부터 출국까지 편리한 서비스 제공

◇ 입국부터 여행 과정, 출국까지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 전반에 대한 편의 제고 및 현장 애로사항 해소

□ 외국인 관광객 출입국 편의 제고

- (동남아 비자개선) 높아진 비자발급수요에 대응해 비자신청센터 신설, 단체전자비자 적용 확대
 - 중국, 베트남 외 3대 비자 수요국*인 필리핀 비자신청센터 신설('23.하)
 - * (비자센터 현황) 중국(광저우 등 5개소), 베트남(하노이, 호치민), 필리핀(無)
 - 인센티브·수학여행에 한정해 시행* 중인 단체전자비자 제도를 중국과 같이 일반단체여행에까지 확대('23.하, 베트남·필리핀·인니)
 - * (중국) 3인 이상 일반단체여행, (베트남·필리핀·인니) 5인 이상 기업인센티브, 수학여행
- (전자여행허가제(K-ETA) 개선) 단체여행 심사 개선 및 시스템 고도화
 - 단체여행객 전용 '일괄 단체심사' 도입으로 단체대상 심사 편의 증진 ('23년~)
 - 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지원, 단체정보 일괄등록 기능 추가('23년~)
- (체류 유도를 위한 비자제도 마련) 소비 여력이 높은 전 세계 젊은 인재 대상 장기 체류형 관광을 유치하기 위한 비자제도 개선(법무부)
 - 高소득·高자산·직업 및 의료보험 가입 등 요건 충족 하에 1~2년간 거주가 가능한 '워케이션 비자'(가칭 디지털노마드비자) 신설('23년)
 - 세계적인 한류열풍에 따라 K-콘텐츠 교육을 위한 젊은층의 체류 근거를 마련하고 인재 유치를 위한 'K-컬처 연수비자' 신설*('23년)
 - * 한류(K-POP 등) 관련 교육과정 수강 전제로 한 최대 2년 이내 체류 비자

□ 국제공항·국제항 연계 한국관광 수요복원 촉진

- (지방공항 입국 확대) 무비자 특례 마련, 지자체-항공사-여행업계 협력 관광상품 개발, 인바운드 시범공항을 통해 지역관광 조기 회복 유도
 - (무비자 특례) 무안공항으로 입출국하는 단체여행객 대상 무비자 입국 허용(베트남·필리핀·인니, '23.3월~)
 - (국내외 지자체 상호방문의 해) 지방공항 배후도시와 자매·우호협력 해외도시 간 상호방문의 해* 지정 및 관광상품 개발, 환대행사 개최**
 - * (예시) 부산(김해공항)-대만 가오슝, 대구(대구공항)-베트남 호치민 등
 - ** 국제선 정기노선이 부족한 지역 한류행사 등 계기, 전세기 활용 상품개발 및 홍보비 지원 등
 - (인바운드 시범공항 지정) 지방공항 시범지정을 통해 신규 노선 공항사용료 감면 및 관광셔틀 등 공항 접근교통 지원('23.하~) (국토부)
- (환승관광 활성화) 인천공항 환승 무비자 등 코로나로 중지된 환승 무비자 제도* 전면 복원('23.상)
 - * △인천공항 환승 프로그램 참가자, △유럽·미국 등 34개국 입국비자를 가지고 한국에서 환승하는 자, △인천 등 7개 국내공항 입국 후 제주공항으로 환승하는 중국 단체 등
 - 환승수요가 많은 일본*⇄김해⇄동남아, 미국⇄인천⇄동남아 등 주력 환승관광 상품 시범개발
 - * 일본 오키나와홋카이도 거주자의 동남아 여행 시 도쿄오사카 환승보다 김해 경유 환승이 저렴
- (크루즈) 크루즈 상품 개발 및 기항지 관광 콘텐츠 매력 강화로 기항 확대 및 모항(준모항) 유치(~'27년, 50만명 여행객 유치)(해수부)
 - 크루즈선 운항 재개 계기 5대 기항지(부산·속초·여수·인천·제주) 및 신규 기항지(서산, 포항 등) 특화 테마 개발 및 방한 선사 유치
 - 크루즈 주요 시장인 미국(뉴욕), 대만(타이베이), 독일(프랑크푸르트), 일본(도쿄), 중국(베이징, 상하이) 중심 글로벌 홍보, 권역별 선사미팅 등을 통해 신규 노선 유치 및 국내외 크루즈관광 수요 확대
 - 산업 육성기반 마련 및 저변 확대를 위해 국적 크루즈선사 출범 지원*
 - * 선박금융 활성화, 선원 수급체계 구축, 인센티브 부여 등 지원방안 마련

□ 관광객 편의성 증진을 위한 교통체계 구축

- (수요응답형 관광지 교통서비스) 관광객의 실시간 이동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허용지역 확대를 통한 교통편의 강화(국토부 협조)
- (관광택시) 통합브랜드*(TAPXI) 서비스 확대(다국어 음성해설, 응대 서비스) 통한 편리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 ('23년 8개→'27년 25개 지역)
 - * 관광택시를 운영하는 지자체 대상 통합브랜드, 차량외관 개선 및 홍보 지원
- (관광지 항공교통) 여행자들의 접근성 개선 및 관광상품 활용 등을 위해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도입(국토부 협업)
 - * 실증('23년~'24년) 및 상용화('25년)를 거쳐 관광형 UAM 도입('2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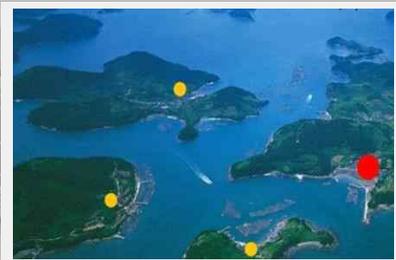
■ (관광분야 적용 예시) ▲도심 내 관광지↔공항.철도역.터미널 간 이동, ▲섬 간 이동 등



에어 모빌리티



버티포트(수직 이착륙장)



지역 간 항공교통

- (대중교통 체계 개선) 주요 교통거점(공항, KTX역, 터미널 등)에서 관광지를 경유할 수 있는 대중교통 체계 개선(국토부·지자체 협조)
 - * (예시) 부산-울산 경전철 개통(울산-부산), 관광자원 연계(지리산(산청)-(구례)-(남원))

□ 체감도 높은 안내 및 쇼핑 서비스 강화

- (관광안내 1330 고도화) 음성·문자 안내 24시간 제공(8개 국어), 외국인 관광객 입국 시 국내외 통신사(로밍·유심)·항공사 연계 1330 안내 메시지 발송을 통한 활용도 제고 등 서비스 개선* 추진
 - * 8개 언어 24시간 안내 제공(~24년), 국내외 통신사·항공사 연계 안내(~27년)

- (하이커그라운드* 확대) 주요 관광·교통거점 중심으로 K-컬처 신기술 융합 관광체험공간 확대 추진

* K-컬처 관심층인 MZ세대 외국인관광객들이 K-팝 등 한류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신개념 K-관광 체험공간

■ 하이커 그라운드의 신기술 융합 콘텐츠 체험형 관광공간 운영 사례



주요 관광도시 후각, 촉각 등 체험공간



참여자가 직접 뮤직비디오 촬영 등 K-POP 체험

- (외국어 오류 표기 개선) 외국어 관광안내물(관광안내 표지·책자·지도 등)의 표기 오류 개선을 위해 시민제보 접수 및 모니터링 추진

* 추진체계 마련('23년), 약 1만여 건 개선(연간 2천여 건 오류 표기 개선/~'27년)

- (무인 다국어 안내 확대) 무인 다국어 관광안내시스템(Kiosk)을 지자체 협업*을 통해 지역 주요 관광거점에 확대** 운영

* (문체부) 안내시스템 소프트웨어 제공, (지자체) 운영 예산확보, 기기 제작 및 설치

** '22년 60개소 → '27년 110개소(50개소 확대)

- (예약·결제 편의 개선) 쇼핑, 교통 등 단기 체류 외래객 모바일 예약·결제 본인 인증 편의 개선 및 결제 수단(카드, 모바일 등) 확대

* (예: 카카오톡모빌리티) 단기 체류 외래객도 택시·버스 등 예약·결제할 수 있도록 개선 검토

** 모바일 결제 : ('23년) 1,000개소 → ('27년) 누적 5,000개소 확대 운영

- (쇼핑 편의 제고) QR코드 활용 쇼핑상품 다국어 상세정보 제공, 휴식공간 및 짐 보관·배송 서비스(공항·KTX역→숙박업소) 구축 등을 통해 쇼핑관광객 편의 강화('23년 2개소 → '27년 10개소)

- (사후환급제도 개선) ① 즉시환급 사후 면세점 확대 지원(~'27년, 신규 1,000개), ②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사후면세점 정보* 제공 (상호, 위치, 품목 등) 근거 마련

* (사후면세점 정보) 개인정보보호에 따라 비공개(국세청) → 사용목적 범위 내 제공

2-1 규제혁신을 통한 재도약 지원

◇ **형클어진 관광산업 생태계의 회복과 확장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적극적인 규제개선, 관광업계 인력 공급 촉진 방안 마련**

□ **관광사업자 부담 완화**

○ **(호텔 등급평가제도 개선) 평가기준·배점을 단일화하여 호텔업 피평가 부담(평가 신청한 등급 점수 미달 시 발생하는 재심 비용 등) 완화('23년~)**

- ▶ **(현행)** 5성급으로 신청해 평가점수 미달 시, 4성급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함
- ▶ **(개선)** 단일화된 평가기준 및 배점으로 1~5성급 결정, 평가 1회로 등급 결정 완료

○ **(호텔업 교통유발부담금 완화) 타 업종 대비 과도한 교통유발계수* 하향조정 여부를 검토하여 호텔업계 비용부담 완화(국토부)**

* 주요시설 교통유발계수: (4~5성 호텔, 가족호텔, 콘도) 2.62 / (일반 숙박시설) 1.16

○ **(외국인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 '22년 말 종료 예정이었던 외국인 대상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제도를 '25년까지 연장하여 관광소비 및 외국인 관광객 확대 지원(기재부)**

○ **(국제회의 기준 완화) 국제회의 소규모화 경향* 및 해외 기준을 고려하여 기준 합리적 조정, 소규모 국제회의 지원체계** 마련(입법예고 '22.11.~)**

* 100명 미만 소규모 국제회의 비중 82% (2020 MICE산업 통계, 한국관광공사)

** (지원사항) 회의장 임차, 홍보 부스 설치, 관광프로그램 운영 지원

- ▶ **(현행)** ① 5개국 이상, 회의 참가자 300명 이상(외국인 100명 이상), ② 3일 이상 진행회의
- ▶ **(개선)** ① 3개국 이상, 회의 참가자 100명 이상(외국인 50명 이상), ② 2일 이상 진행회의

□ 원활한 시장 진입을 위한 제도 개선

- (글램핑 소재 다양화) 야영시설(글램핑)에 사용가능한 소재를 '천막'에서 화재 안전인증을 받은 소재로 다양화('23년~), 이용객 편의성 제고 및 캠핑산업 성장 촉진



* 다양한 소재로 만든 조립식 돔텐트를 글램핑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실증특례 진행 (합성수지HDPE 재질, '20.7~'24.7 /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 FRP 재질, '22.6~'24.6)

- (유원시설 인허가의제 조항 신설) 유원시설업 허가 시 부대시설(식품 접객업, 체육시설, 게임업 등) 신고,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 조항 신설, 신규진입 유원시설 사업자의 행정부담 완화('23년~)
-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 제도화) 현행 법령상 외국인 대상 영업 가능한 도시민박을 내국인까지 확대 검토*, 새로운 숙박수요에 대응

* 한걸음 모델을 통한 이해관계자 협의 및 실증특례 진행 중 ('20.7.15~'24.7.14)

※ 「농어촌정비법」 상 '농어촌민박업'은 농어촌지역 주택에서 내·외국인 숙박 가능('95년~)

- (관광사업자 재창업 규제 완화) 관광사업자 결격사유 조항을 정비, 파산 등 경영위기를 겪은 관광사업자가 복권 시 시장 재진입 원활화 ('23년~)

▶ (현황) 행위무능력이나 파산을 이유로 사업등록·승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 이후 2년 이내에는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더라도 재창업 불가

▶ (방안)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된 경우 추가적 결격기간(2년) 미적용

□ 관광업계 인력 공급 촉진

- (해외인력 고용 규제완화) 호텔·마이스업 등에 취업가능한 해외 인력 비자발급 규모 확대 및 요건 완화, 업계 인력난 해소 지원(법무부)
 - (호텔업) ▲전문직 취업비자(E-7) 호텔별 채용인원 확대(2인→5인), ▲재외동포(F-4) 인구감소지역 취업제한 완화 특례*, ▲학업 목적 발급비자(D-2) 시간제 근무 가능 시간 확대(학사, 최대 30시간) 추진
 - *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인구감소지역 외국인의 유치·정착을 위한 비자 특례 제도로 대상지역 공모 선정
 - (마이스업) 단순 지원 업무수행 목적의 외국인력 고용 촉진을 위한 방문 취업비자(H-2)의 특례고용허가제에 마이스업* 적용 추진
 -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7592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 등 해당
- (관광산업 맞춤형 고용지원) 관광산업 분야 고용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연계·협력하여 다양한 일자리사업* 시행(고용부)
 - *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교육훈련, 기업컨설팅 등 '패키지 지원사업', ▲관광산업 업황회복에 따라 증가하는 경력직 인력 수요에 대응한 '3040 재고용 촉진사업', ▲관광산업 관련 기업 맞춤형 '구인난 지원센터 운영사업' 등
- (구인-구직 연계 밀착지원) 여행·관광숙박업종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대하여, 채용 서비스에서 고용여건 개선까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도약보장패키지' 확대 ('23.하~, 고용부)

□ 업계 위기 극복 체계 마련

- (관광현장 위기극복 지원체계 마련) 유사 재난·위기 시 적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위기 극복 지원체계 구축 및 재원 안정화 방안 마련 ('23년~)
 - (공제조합)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여행업 등 관광업계에 재기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공제사업 활성화 추진
 - * 관광분야 위기지원 대응 공제보험 설계 및 지원을 위한 세부방안 마련 ('23.상)

- (법령정비)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정부의 지원 범위, 기준 등을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
 - * 「관광진흥법」 제76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재원 안정화) 기금사업 지출 구조조정*, 부담금 다각화, 신규재원 발굴 등을 통한 기금 재원 안정화 추진
 - * 균특회계 이관('23년 965억원), 직접용자 이차보전 전환(1,000억원) 등 추진
- (금융지원) 코로나19 피해 업계의 재기 및 회복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 (관광기금 용자)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는 관광업계 지원을 위한 기금융자, 이차보전 지원 추진
 - (금리우대) 업계의 위기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기업휴지보험 등 가입 사업체 대상 운영자금 용자 금리우대 혜택 제공
 - (펀드 투자대상) 위기극복 및 재기 지원을 위해 매출액, 영업이익 등 경영지표가 전년 대비 악화된 기업을 투자 의무대상에 포함
- (위기 회복 컨설팅) 관광사업체를 폐업하거나 재기하고자 하는 업주 대상 전문 컨설팅 지원 (지역관광지원센터 연계)

□ 거버넌스 체계화로 관광정책 질적 강화

- (지역관광전략회의 신설) 지역관광 발전전략 수립, 지자체 협업 사업 마련 등 17개 시도 중심 지역관광 활성화 거버넌스* 마련
 - * 「관광기본법」 개정 추진 (현재 비법정, 비정기 회의체로 시도관광국장회의 운영 중)
- (국가관광전략회의 지원 TF 설치) 관광산업, 국제관광, 지역관광, 규제혁신 등 분야별 민간 참여 TF 설치, 체계적 정책 발굴* 추진
 - * 다양한 민간 현장 관계자 의견 수렴, 제도 개선사항 발굴, 정책·사업 개발 논의 등

2-2

미래 관광산업 선도기반 구축

◇ 4차 산업혁명 환경에 대응한 관광산업 혁신을 위해 관광 분야 디지털 전환 지원 및 스마트관광 확산, 인재 양성 등 기반 구축

□ 관광업계 디지털 혁신 지원

○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기업이 필요한 디지털 혁신활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확대(~'27년, 총 1,000개사)

* 스마트기반 기술 도입, 사용자 편의(UX) 고도화, 디지털역량 진단 및 ICT 해법 도입 등

○ (업종별 특화 지원) 디지털 전환 수준, 분야별 디지털 기술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모델 구축

- (마이스업) 마이스 행사 운영·기획·마케팅 단계에 필요한 디지털 기술 사업화 지원 및 디지털 생태계 선도기업 육성('23~'27년, 총 200개사 규모)

* ▲디지털 인프라 구축(디지털 마이스 전문공간 구축), ▲디지털 인재 양성 교육과정, ▲첨단 회의기술 지역 확산(회의 개최 지원) 등 기존 디지털 지원 사업 연계성 강화

- (여행업) 여행사 디지털 역량 수준별 컨설팅, 교육, 수행자금 등 맞춤형 디지털 전환 지원 추진('23년~'27년, 총 1,000개사 지원)

○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 경영 지원) '데이터랩*' 고도화로 민간·공공 관광 빅데이터 개방 및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통해 기업 시장분석, 사업전략 수립, 서비스 품질 향상('23년~)

* 관광행태 관련 빅데이터를 융합 분석해 맞춤형 관광특화 분석서비스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AI 기반 지역관광 인사이트 리포트 생성, ▲맞춤형 데이터 추천 등 신규 추진

○ (데이터 기반 마케팅 지원) 관광·이종 산업군 간 공동 마케팅 및 데이터 교류 활성화로 잠재 소비자 발굴, 관광시장 외연 확대

□ 스마트관광 확산과 고도화

○ (스마트관광도시 확산) '스마트관광도시' 선도모델 조성 및 지자체 역량진단, 맞춤형 컨설팅으로 스마트관광 자율 확산 촉진

- 스마트관광도시를 관광벤처 창업·육성* 테스트베드로 활용, 지자체-벤처기업 교류 상설화, 표준화된 스마트관광 콘텐츠·관심지점 개방으로 민간 플랫폼(카카오, 티맵 등)의 활용·사업화 확대

* 스마트관광도시에서 관광벤처의 신규서비스 검증 및 사업모델 발굴

VR 시간여행	통합 모빌리티	위치기반 AR 가이드
 <p>VR-AR 콘텐츠로 전경, 인물 등을 재현하여 과거로 시간여행</p>	 <p>XR버스, 월미바다열차 등 모빌리티와 관광콘텐츠를 결합·제공</p>	 <p>AR로 목적지와의 거리와 정보제공을 동시에 제공</p>

- 특색있는 지역콘텐츠 개발을 위해 로컬크리에이터, 주민, 기술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협업 실험 프로젝트 'SOS랩*' 추진

* SOS랩(Solution in Our Society): 지역사회의 문제를 소프트웨어(SW)를 통해 지역 스스로 해결하는 프로젝트 및 조직

○ (스마트관광 R&D) 디지털 혁신을 위한 업종별·분야별* 기술로드맵 구축 및 인재양성, 사업화 등 빈틈없는 R&D 추진체계 마련

* ▲(숙박업) IoT 중심 운영체계 개선, ▲(여행업) 빅데이터 활용 맞춤형 정보 제공, 통합예약·결제 플랫폼 운영, ▲(MICE업) 온라인·디지털 기반 행사 운영 효율화 등

- (융복합 인재양성) 전문대학원과 연계, ICT와 관광산업을 모두 이해하는 '브릿지 인력'(프로그래머·디자이너 등) 양성 R&D 추진('25년~)
- (수요기반 실증·사업화) 관광업계·전문가 R&D협의회 추진('23년~) 및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 실증 지원으로 기술 활용도 제고

□ 글로벌 관광 혁신기업 육성

- (유니콘 관광기업 육성) 업력 기준 육성체계에서 기업의 투자유치·해외진출 목표 기반 육성체계로 관광벤처 지원 패러다임 전환
 - (지원체계 정비) 기존 업력(예비/창업 3년 미만/창업 3년~7년 미만) 기준 지원체계를 투자유치 실적 등 성장가능성 기반으로 고도화
 - (해외진출 지원) 해외 관광기업지원센터*를 거점으로 국내 유망기업 시장검증, 해외투자 유치, 현지 파트너십 체결 등 적극 지원

* 싱가포르 관광기업지원센터('22.8월 개소)를 시작으로 해외거점 10개소 구축 추진(~'27년)

- (관광벤처 생태계 기반 강화) 관광벤처 활성화를 위한 전통 관광업계 및 글로벌 대기업, 트래블테크 기업, 공공부문 등 협력 네트워크 강화
 - ▲ 창업기업-전통기업 상생협업 네트워킹(관광기업 이음주간/매년 6월), ▲트래블테크 비즈니스 미팅, 컨퍼런스(트래블 테크 서밋/'23년 신규), ▲글로벌 대기업-중소기업-관광기업 오픈이노베이션* 협력 추진

* 4대 중점 분야 (고객 경험 개선, 현장 일하는 방식 개선, 관광 현안 해결, 기술협력) 협력 추진

-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확대) ▲관광기업 창업·성장 지원, ▲관광 일자리 창출, ▲지역특화 관광콘텐츠개발의 허브로서 지역관광기업 지원센터* 확대('22년 8개소→ '27년 14개소)

* (현황) '19년 부산/'20년 인천, 대전·세종, 경남 창원/'22년 광주, 울산, 경북 경주, 전북 전주

- (투자펀드 조성) 관광기업 지원 펀드 5,000억원* 조성으로 관광 관련 중소·벤처기업 성장 촉진 및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 지원

* ('22~'27년) 관광기업 육성펀드, 관광기금 출자 3,500억원, 민간자본 1,500억원

- (원스톱 B2B 정책서비스) 관광분야 공모사업('22년 기준 835개) 신청 원스톱 서비스, 수요자 유형·공모 지원 이력 등 분석정보를 제공하는 '한국관광산업포털*' 구축('23년)

* 네트워킹 및 협업지원을 통해 업계 파트너십 구축, 투자유치, 사업제휴 유도

□ 현장밀착 맞춤형 인재양성 · 취업지원

- (예비인력)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현장밀착형 전문인력 양성('23년 580명 → '27년 700명)
 - (고등학교) 특성화고 대상 취업 멘토링 및 기업 탐방 지원('23년 300명)
 - (대학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우수호텔아카데미 운영('23년 80명)
▲지역대학(관광학과) 연계 지역특화 관광자원 발굴 지원, 지역이주 창업지원 등 현장 중심 역량 강화 추진('24년~)
 - (신증년) 퇴직 신증년 및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 대상 취업연계 직무과정(관광-ICT실무, 로컬여행호스트, 걷기여행상품 기획자 등) 확대
- (취업 연계 지원) 관광교육이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취업 연계 지원
 - (관광일자리 센터 운영) 관광일자리센터 및 관광전문인력포털 '관광인' 운영을 통한 온오프라인 취업 컨설팅 및 일자리 매칭
 - (관광산업 일자리 박람회) 업종별 일자리정보 제공, 최신 관광산업 트렌드 소개,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및 영세 관광기업 인재 유치 등 지원
- (재직자) 환경변화에 대응한 지속적인 실무역량 향상, 전문성 제고 위한 분야별* 종사자 교육 추진
 - * 관광안내인력, 관광통역안내사, 카지노·유원시설·숙박업 종사자 등
- (미래형 관광인재 육성) 미래 관광수요 대응 교육통해 新관광산업 인력 양성('23년 700명→ '27년 1,500명)
 - (미래형 기술활용 교육) ▲관광-빅데이터 활용 관광상품 기획
▲디지털 관광마케팅 교육 등 디지털 전환 환경에 대응한 인재양성
 - (관광 트렌드 교육) 약자 친화 관광, 반려동물 동반관광 등 미래 관광수요에 대한 분석·예측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

2-3

고성장 융복합 시장으로 영역 확장

◇ **관광과 타 분야 융·복합(웰니스·의료, 국제회의, 카지노 등)을 통해 신규 관광산업 수요 창출 및 고부가 관광시장 육성**

□ **마이스(MICE) 산업 유치전략 다각화 및 경쟁력 강화**

○ (유치전략 다각화) 유사나(USANA) 기업회의와 같은 대규모 국제회의부터 하이브리드·소규모 마이스 행사까지 전방위적 유치를 위한 마이스 지원 제도 개편(지원기준 완화, 대규모 외국인 유치 국제회의 인센티브 등, 23년~)

* 2023 유사나 기업회의 : 기업회의 방한단 역대 최대 규모 15,000명

- (K-컨벤션 육성) 한류 등을 주제로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개최되는 융복합형(공연, 전시, B2B 등) 대표 국제회의를 업계 및 지역 마이스 전담기구 등과 함께 발굴 및 육성('23년~'27년, 총 15개)

○ (개최지역 경쟁력 강화) 유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회의 시설을 중심으로 숙박·쇼핑·공연장 등을 집적화한 국제회의 복합지구의 지정을 확대('22년 5개→'27년 10개)하고 디지털 공간화 지원을 통한 활용도 제고

*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현황(총 5개 지구) : 인천, 경기 고양, 광주, 대구, 부산

- (코리아 유니크메뉴) 다양한 관광자원(문화, 레저, 전통 등)과 연계된 특별한 회의시설을 발굴('22년 39개→'27년까지 50개)하여 유치 매력도 강화



한국의집(서울)



생각하는정원(제주)



남이섬(강원)

○ (업계 역량강화 및 공정환경 조성) 현장형 인력양성을 위한 디지털·전문역량 교육을 지원하고 국제회의 용역 표준계약서('22.8월 제정) 활용도 제고(공모사업 평가반영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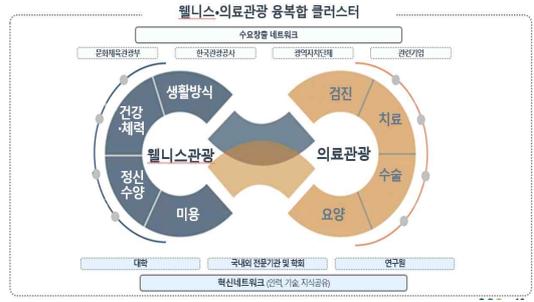
□ 웰니스·의료 관광 산업 육성

- (웰니스·의료 융복합) 웰니스·의료 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운영으로 세계적인 웰니스·의료 관광 목적지* 조성(‘23년 광역지자체 6개 선정 및 3년 운영)

* (예) 의료 치료(성형, 피부 등) 이후 웰니스관광(식단, 스파, 마사지 등)을 결합한 서비스 제공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안)]

요소	주요내용
융복합	1. 지역별 핵심·보조거점 연계 및 체험 콘텐츠 확충 2. 관광자원 연계 상품화(음식, 공연 등 융합) 3. 광역 의료·웰니스 관광 자원 재구조화
기반 구축	1. 광역 통합 의료·웰니스 관광 협력체계 구축 2. 관광 접근 편의 기반 구축(교통, 숙박, 경관개선)
해외 마케팅	1. 광역 관광 브랜딩 및 홍보마케팅(지역 관광시설 연계) 2. 해외 웰니스·의료 자매도시 및 교류 3. 국제 컨퍼런스 참가 및 해외 홍보



- (웰니스관광) ‘(가칭)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신(新)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기반 마련(‘23년 제정 목표)

* (주요내용) ▲정의, ▲관계부처 정책협의회, ▲치유관광산업 육성 기본 계획 수립 및 지원, ▲치유관광산업 지구 지정, ▲이용기반 조성, ▲실태조사, ▲연구개발 등

- 기존 웰니스관광페스타 확대·개편을 통한 ‘올해의 웰니스관광도시’ 선정으로 한국의 대표 웰니스 관광지로 집중 홍보(기초지자체, 매년 1개소)
- 추천웰니스 관광지(‘22년 58개소→’27년 100개소) 선정·지원, 의료진·소방관 등 대상 웰니스관광 체험 지원 확대
- (의료관광) 국가별 맞춤형 상품* 개발, 국비지원환자(외국 정부)·중증환자 등 의료관광객 다변화 및 확대로 50만명 유치(코로나 이전 수준)(~’26년)
- * (예)부인과(몽골·중동)/예방접종(중화권)/건강검진(구미주)/안과(러시아)/한방(일본) 등
-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선정기준* 완화를 통해 비자발급 편의 제고 (법무부)
- * (기준) 최근 1년 이내 의료관광 초청실적이 50건 이상 또는 진료실적이 500건 이상
- ※ (선정 시 혜택) ▲전자 비자신청, ▲재정서류 생략, ▲동반가족 초청범위 확대 등
- 의료관광비자 발급의 시급성 등을 고려, 비자 심사 기간 단축을 위한 의료관광비자 우선 처리 방안 협의 및 재외공관 업무 담당자 교육 등 추진(외교부)

-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비대면 협진) **활성화*** 및 연계 의료관광상품 개발,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연장(~'22년→~'25년) (복지부, 문체부)

* 해외 동향·유망기술 트렌드 정보 제공 및 기업 간 협력사업 발굴 지원, ICT 기반 사전상담·사후관리 사업 확대('22년 3개 사업 진행 중/몽골, 카자흐스탄)

□ **복합리조트 조성 및 카지노업 활성화 지원**

- (복합리조트 조성 지원) 다양한 문화관광 시설(호텔 카지노, 공연장 등을 갖춘 복합리조트 개장('23년 예정), 공항 인근 신규 관광 수요 확대



※ 인천 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에 개장 준비 중인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조감도 (외국인 투자 기업(美 MGE) 총 28억 불 투자 예정, (대지) 1,617,186㎡, (연면적) 951,237㎡)

- 체류·환승 관광 확대(쇼핑·단순대기→문화체험·관광활동)추진 및 대규모 공연장(15,000석) 연계 한류 공연 등 관광상품* 개발지원 및 홍보('23.하~)
- * (예시) ▲K-POP, e-Sports 등 세계적 공연 및 이벤트 개최 지원, ▲관광객 선호 K-브랜드 멀티숍, 국내 미슐랭 레스토랑 등 연계 관광상품 개발 지원 등
- (카지노업 활성화 지원) 시장 다변화(중국 중심 → 동남아, 북미 등), 지속적 규제개선을 통한 대외 경쟁력 강화
- (시장 다변화) 공연, 전시, 체험 등 K-콘텐츠 연계 카지노 관광상품 개발지원* 등을 통해 동남아·북미 고객 확대
- * 카지노 복합리조트 등을 활용한 K-POP공연-카지노-객실 패키지(동남아 대상), 예술 작품 전시 체험, 전통주 시음-카지노-객실 패키지(북미 대상) 등
- (규제개선) 외국인 전용 카지노 옥외광고물 재개 추진(행안부 협조), 신규 게임 도입 규정 개선, 관광기금 활용 원활화* 등 규제개선 추진**

*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기금융자 기준 관련 관계기관 협의

** '카지노 민관협의체' 운영 및 제도개선 과제 지속 발굴 (분기별)

전략3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국내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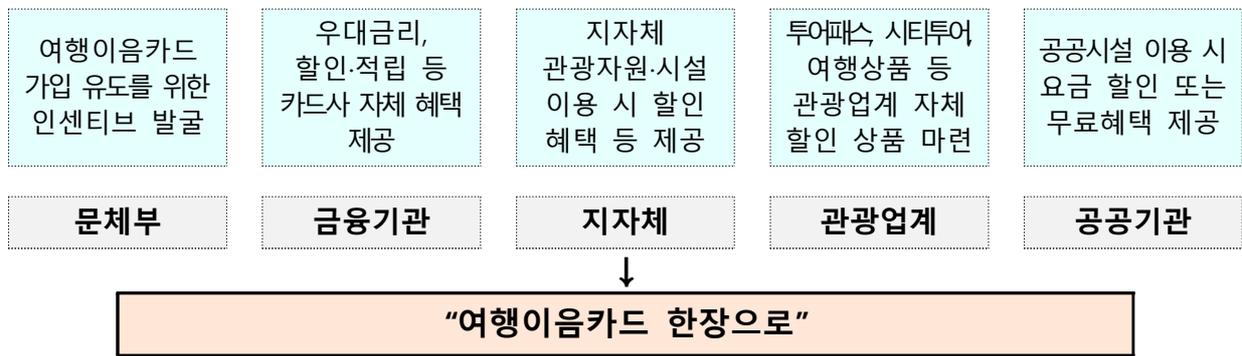
3-1 국내여행 수요 촉진

◇ 정부, 지자체, 민간기업 등이 개별적으로 지원하던 여행 혜택들을 집약적으로 제공하여 혜택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 증대

□ 공공-민간 연계 국내여행 인센티브 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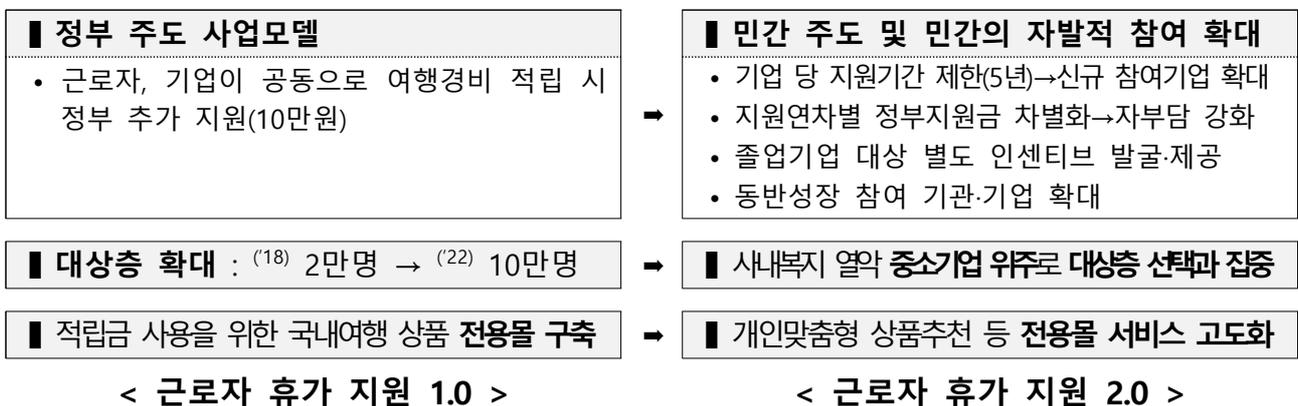
○ (여행이음카드) 국내여행 시 공공·민간이 보유한 국내여행 혜택과 서비스를 카드 한 장으로 누릴 수 있는 **여행이음카드 도입**(24년~)

< (가칭) 여행이음카드 체계 >



○ (근로자 휴가 지원 2.0) 장기* 참여기업 대상 지원금 차등 지원 및 별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졸업모델** 도입을 통해 민간 주도로 전환

* 기업의 휴가문화 변화까지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6년차 참여기업부터 적용



- (여행이 있는 주말) 매월 마지막 주말을 '여행이 있는 주말'로 지정, 민관협력 캠페인, 홍보를 통해 선택적 주3일 휴일제 문화확산('24년~)
- (여행가는 달) 개최시기 정례화(6월), 관광업계·지자체 등 민·관 참여 확대, 혜택 추가발굴을 통해 국내여행 대표 캠페인으로 브랜딩

■ 여행가는 달

- (도입) 코로나19 이후 국내 여행수요 회복을 위해 기존 '여행주간'을 '여행가는 달'로 변경 운영('21년~)
- (내용) 관광지·교통 등 할인혜택 제공, 여행프로그램 운영, 미디어 활용 여행참여 캠페인, 국민참여 이벤트 개최 등



지역여행 프로그램(신안 웰니스)

→ 코로나 이후에도 비수기 국내여행 촉진을 위해 정례화

□ 국민 여행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여행환경 조성

- (캠핑 인프라 확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공동시설 활용 소규모 캠핑공간 조성 검토, ▲산림자원 활용 숲속야영장 조성 확대, ▲바닷가 캠핑장 조성 위한 법령(세면장, 취사장 등 건축물 설치 등 관련) 개정 추진



숲속야영장(강원도 화천군, 국립)



바닷가 캠핑장(강원도 고성군)

- (차량 이용 캠핑 인프라 지원) 캠핑용 자동차의 오·폐수 처리시설인 '덤프 스테이션' 설치 지원 시범 추진



덤프 스테이션(dump station) : 캠핑카에 상수도, 전기 공급, 오수처리를 쉽게 할 수 있는 시설

- ('모두를 위한 캠핑' 확산) 안전·친환경*·반려동물 동반 등 다양한 주제로 지역상생 캠핑 축제 신규 추진('24년~) 및 캠핑장 인증제 실시

* 일회용품 안 쓰기, 쓰레기 배출 zero 캠핑, 무음주 캠핑 등

○ (반려동물 동반여행) 전국 312만 반려동물 양육 가구를 위한 관광 정보 제공 및 친화 관광지 조성으로 新 관광시장 확보

- 관광지·숙소·식당 등 여행정보 제공(대한민국구석구석/~'27년 5백 건) 및 산책, 놀이·체험이 가능한 관광지 육성('23년 2개소→'27년 10개소)

* 반려동물 동반 여행 의사 74%, 여행비용 지불 의사는 일반인 대비 약 3배



춘천 강아지숲



유람선 여행(댕댕크루즈)



펫디켓 캠페인

○ (축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K-컬처가 집약된 우수 문화관광축제* 대상 축제 프로그램 고도화, 상품 개발 및 해외 진출 지원('24~'27년, 5개 축제)

- 품격있는 축제 공연·체험 및 타 산업과 융합한 축제 기념품 개발, 해외 주요 축제와 교류 지원으로 K-축제의 매력을 세계에 전파

* 안동탈춤축제, 보령머드축제 등 재정 지원 누적 10년이 도래한 문화관광축제(21개)

■ 문화관광축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예시

축제 프로그램 고도화



화천산천어축제 얼음조각 공원

관광기념품 개발



안동탈춤축제 하회탈 빵

해외 축제 교류 지원



보령머드축제x스페인 토마토 축제

3-2 누구나 누리는 지속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 ◇ 여행을 제약하는 요소들을 없애고, 누구나 누리는 관광 구현
- ◇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상생, 친환경 등의 가치 조명

□ 관광약자 프렌들리 新시장 육성

- (물리적 환경 개선) 관광지 내 시설(경사로, 단차 등)을 관광약자(장애인, 고령자 등)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개선하는 '열린관광지' 지속 확대*
 - * '22년 누적 112개소(전국 관광지 2,497개 중 4.5%), '27년 누적 250개소 목표
 - ▲관광약자 맞춤형 관광정보 누리집 운영, ▲'특별한 관광가이드북*' 제작
▲무장애 관광정보 수집 가이드라인 배포('24년~) 등 섬세한 정보 제공
 - * 대표 열린관광지 5곳을 선정해 촉각, 큰글자, 점자, 음성으로 제작한 가이드북
- (여행 연결망 구축) 이동, 식당·카페 이용, 체험 등 계획 수립부터 활동까지 제약 없이 여행가능한 관광약자 여행연결망 구축



리프트 장착 특장버스



휠체어 이용자 카누 체험



민간시설 개선

- (전문 여행시장* 육성) '투어케어'(Tour care) 인력양성 확대(~'27년, 총 1,500명) 및 '전문여행사 육성사업' 신규 추진('24년~)

* (현황) 장애인 전문여행사 10개 내외(종사자 10인 이상은 1개), 무장애 렌터카 업체는 1개

< 관광약자 전문여행사 육성 사업(안) >

- (전문여행사 역할) 관광지점-교통수단-숙박시설-체험콘텐츠-보조인력 섭외 등 무장애 여행일정 수립 및 위급상황 대응
- (기본구조) ①예비(교육)-②육성(인력양성·상품개발)-③자생(운영·마케팅) 단계를 거쳐 실제 운영 실적 기반으로 '관광약자 전문여행사'로 육성

- (여행경험 확대) 중증장애인 등 타인 도움 없이 관광활동이 어려운 취약계층 대상 여행경험 제공 확대('나눔여행', '23~'27년 1,500명)

□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 구축

- (저탄소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 관광사업체 탄소배출량 조사를 통한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중소 사업체의 탄소저감 컨설팅 등 지원

* (온실가스 인벤토리) 온실가스 배출원을 찾고, 배출원별 배출량을 조사한 통계

- (친환경 여행문화 조성)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체험단 운영 등 국민 참여 독려 및 탄소중립 실천 여행지, 친환경 생태체험 여행지 등 '친환경 추천 여행지' 선정, 육성

■ 탄소 저감 관련 캠페인 사례



몽골인이 방한 관광상품 구매 시 1명당 1그루의 나무를 몽골에 심는 캠페인
→ 사막화 방지, 지역민 소득, 한국관광 확대로 연결



연예인 활용 플로깅 캠페인

- (지역주민 상생·공존) 지역 관광역량 강화 및 '오버투어리즘' 등 관광으로 인한 지역문제 해결과 조정을 위한 기반 마련

- 지방자치단체, 기업, 주민 등 지역관광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계, 참여하는 '지역관광 혁신조직' 확대(~'27년 53개)

-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경영 확산) 마이스, 호텔, 유원시설 등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ESG 경영 가이드 개발 및 업계 확산 지원

*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투명(Governance) 앞 글자를 딴 용어로, 기업 등에 대한 투자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핵심요소

3-3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관광안전 확립

◇ 관광지 혼잡도 및 위험요소 예측, 안전 관리체계 강화로 국내외 관광객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관광안전 확립 추진

□ 관광지 위험 감지·관리

○ (관광안전 예보) 빅데이터 활용 주요 관광지 혼잡도 예측 알고리즘 개발을 통해 '여행예보서비스' 고도화*('23년)

* 감지-통보 등 관계기관 안전관리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사고 예방, 신속 대응 추진

○ (관광지 위험 감지 시스템) 인공지능 기반 관광지 위험요소 감지 및 안전관리 기술*(관광 R&D) 개발('24년~)

* (예) CCTV 위험감지 정보 및 WIFI 실내 측위 정보 융합을 통한 관광지 밀집도 감지 기술 개발, 디지털트윈 기반 AR공간 측위보정을 통한 위험신고 기술 개발

○ (1330 안전 안내) 외국인 관광객이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치안(112), 소방(119), 보건(1339) 등 안전 관련 콜센터와 연계 강화, 서비스 인지·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 관광안전 다각적 강화

○ (관광안전 R&D) 관광지 안전관리, 안전정보 제공, 오버투어리즘 등 지역관광 현안, 문제 해결형 기술* 연구개발 추진

* (예) 관광지 자원 재순환을 위한 IoT 활용 분리배출 및 안전 모니터링 기술 개발

○ (안전매뉴얼 개선) 업종별, 분야별(외국인관광객, 축제 등) 안전매뉴얼 주기적 정비* 및 관광숙박업 등 표준매뉴얼** 신규 수립

* (예) 재난사고 유형별 관리요령 내 '인파밀집 사고' 대응 관련 사항 추가

** 중소형 숙박시설은 자체 안전매뉴얼 부재로 표준 매뉴얼 제작, 배포 필요

- (안전교육 강화) 관광숙박업, 유원시설업, 야영장업, 관광통역안내사, 문화관광해설사, 축제실무자 등 분야별 종사자, 지자체 담당자 등 대상 안전교육 교재 제작 및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등 확대('23년~)
- (안전 점검·관리 체계화) 업종별 안전 점검·관리 체계적 추진('23년~)
 - (유원시설업) 안전점검 전문성 강화 위한 유원시설 안전관리지원 센터 지정·운영(중장기, 관광진흥법상 근거 마련 및 센터 운영 예산 확보 추진)
 - (야영장업) 전국 미등록 야영장 현장 계도 및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지속 추진(매년)
 - * NAVER와의 협업을 통해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포털사이트 홍보 삭제 추진
 - (여행업) 안전 여행상품 선정, 여행상품 안전 모니터링·컨설팅 및 여행업 무등록업체 적발을 통해 여행사고 피해로부터 국민 보호 및 여행상품 질적 저하 방지(매년)
- (국외여행 안전 강화) 재외국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정비(외교부) 및 국외여행인솔자 안전교육 교재 제작('23년)

□ 관광안전 제도 개선

- (문화관광축제 안전 강화) 문화관광축제 지정 평가 시 안전관리 지표 신설 및 다중밀집 사고 등 사전 예방체계 마련('23년~)
 - 모든 축제에 “^{행안부}안전관리계획서” 수립 의무 부과,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적합성, 이행 노력, ‘인파 밀집도’ 예상에 따른 대응계획, 안전관리자 교육 및 관람객 대상 안전 안내체계 평가
- (관광특구 안전관리 체계 강화) 관광특구진흥계획 수립(시·군·구) 및 집행상황 평가(시·도) 시 포함하여야 할 의무사항으로 ‘다중 운집 행사 등 개최 시 안전관리 체계’ 신설*(주최자 없는 경우를 포함)
 - * (현행) 관광특구진흥계획 수립 내용에 ‘안전관리’ 관련 내용 미포함 (관광진흥법)
 - (개선) 행사 안전 계획뿐만 아니라 조직·역할 등을 포함하는 ‘안전관리 체계’ 수립

전략4

더 자주 더 오래 머무는 지역관광시대 구현

4-1

체류형 관광모델 개발로 지역경제 활력 강화

◇ 워케이션, 살아보기형 관광 등 국내외 관광객의 지역 장기체류를 유도하여 소비 확대, 일자리 창출 등 '방문자 경제' 실현

□ 체류형 여행모델 확산

○ (워케이션) 지역관광 수요 증대, 체류 증대, 시기 분산(휴가철→비성수기, 주말→평일)을 가속화하는 '여행친화형 근무제(워케이션)*' 확산

* 일+휴가(work+vacation)의 합성어로, 원격근무와 여행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

- 타 부처 자원 연계* 및 기업-지자체 매칭, 관련 DB 및 네트워크 구축, 홍보 등을 통해 활성화 지원

* ▲어촌 워케이션(해수부), ▲농촌유학지원사업(농식품부, 교육청)

※ '워케이션 비자'(디지털노마드비자) 신설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확대 추진

■ 해외사례 : 일본 - 코로나19 이후 워케이션 시장 급성장(^{20년} 699억엔→^{25년} 3,622억엔 전망), 와카야마 현 등 주도로 전국 단위의 워케이션 지자체 협의회 설립(151개), 기업 대상 원스톱 워케이션 서비스 제공 (와카야마 현 기준 100개 기업 파트너십 체결)

■ 국내 기업 사례 : ①한화호텔앤드리조트 - 전체 임직원 대상 주중 2~4박 워케이션 정규 프로그램화(객실, 여행비 지원), 10~14시 집중근무 및 사전 계획 기반 업무 추진

②티몬 - 직원 50명씩, 매주 4박 5일 워케이션 실시(교통, 숙박비 지원)

○ (야간관광) 콘텐츠·경관명소·관광여건을 갖춘 '야간관광 특화도시'를 조성*해 지역에 하루 더 숙박·체류하도록 유도

* 야간관광에 맞는 공연·프로그램 등 콘텐츠 육성, 미디어아트·조명 등 경관조성 등 지원



인천송도 센트럴파크 야간라이트업



통영 강구안 수변 경관조명



프랑스 리옹 빛 축제

□ 지역관광 활성화로 지방인구감소 문제 대응

- (관광협의체 구성) ^(관)문체부, ^(민)지역관광기구(관광재단, 관광협회 등), ^(연)문화관광연구원 등이 참여한 ^(가칭)'지역관광 활력 거버넌스' 구축('23년~)
 - 지방소멸 대응기금 활용 관광사업*을 위한 지자체 컨설팅 지원으로 89개 인구감소지역 관광 성공모델 제시
 - * '22년 행안부 지방소멸 대응기금 활용 사업 중 문화관광 분야 계획 비중 1위(28%, 226개)
-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콘텐츠 지원) 전통문화, 명사 등 지역의 고유한 스토리를 활용한 지역 관광상품 개발
 - * (예) 지역명사(사진작가 정봉채)와 우포 늪을 결합한 창녕 '우포 사진산책' 등
 - 지역 고택, 마을회관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이색 숙소 조성 지원 및 지역 숙박 여건 개선
 - * (예) 전통문화(문경새재)와 고택을 결합한 한옥스테이 문경 '화수헌'
 - 방문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관광지 등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재방문을 유도하는 관광주민증 발급('22년 2개 →'27년 총 30개소)
- (생활관광) 일상에서 벗어나 지역에서 체류(스테이)하며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살아보기형 '생활관광' 확대(~'27년, 총 30개소)
 - 관광체험(문체부, 단기)과 지역정착지원 사업*(타부처, 장기)을 연계 추진하여 정주인구·관계인구로 전환하는 계기 마련
 - * ▲ 농촌에서 살아보기(농식품부), ▲ 농촌유학(농식품부), ▲ 청년마을만들기(행안부) 등

■ (전남강진 사례) 푸소(Fu-So)는 일주일 간 ①주민 밥상 체험 ②조업 체험(농업, 어업, 도예 등), ③숙박 체험, ④지역주민 교류를 통해 **독특한 지역 체험과 정서적 교감**을 관광객에게 제공

• 2021년 푸소농가 직접 소득 3.71억원 증가, 관광객들의 지역 내 소비 1.28억원 발생



4-2 독창적 매력이 있는 지역 관광자원 개발

◇ 지역관광 개발·육성을 위한 단계적(지역소도시⇒거점도시⇒광역권) 관광개발 전략과 균형발전 위한 재정 투입(10년간)으로 지역관광 경쟁력 제고

□ 지역 특화 광역관광개발로 '하루 더 쉬이 있는 여행환경' 조성

○ (K-관광 휴양벨트) 남도 예술, 다도해, 문화콘텐츠 등 K-관광자산의 매력을 스토리텔링으로 재구성하는 문화휴양 관광지대* 구축('24~'33년)

* 부산·광주·울산·전남·경남(5개 시도 40개 시·군) 대상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수립('23년)

- (독보적 지역매력 특화) 기존 원형자원 개발형에서 콘텐츠 경험성 확산형 사업으로 전환, K-컬처를 연출하는 시그니처 관광 공간화

■ (관광매력 특화프로젝트) 미래형 건축, 첨단 기술과 자연 경관 혁신적 융합하는 전략 사업 추진
 ⇨ ▲(관광UAM) 만(灣)과 섬의 접근성 혁신, 여행기반 확충 ▲(관광플로팅) 우수한 자연 경관과 예술이 공존하는 플로팅공연장 조성 ▲(관광정원) 훼손지와 유휴자원을 재생하는 복합테마정원 조성 등



관광UAM



관광플로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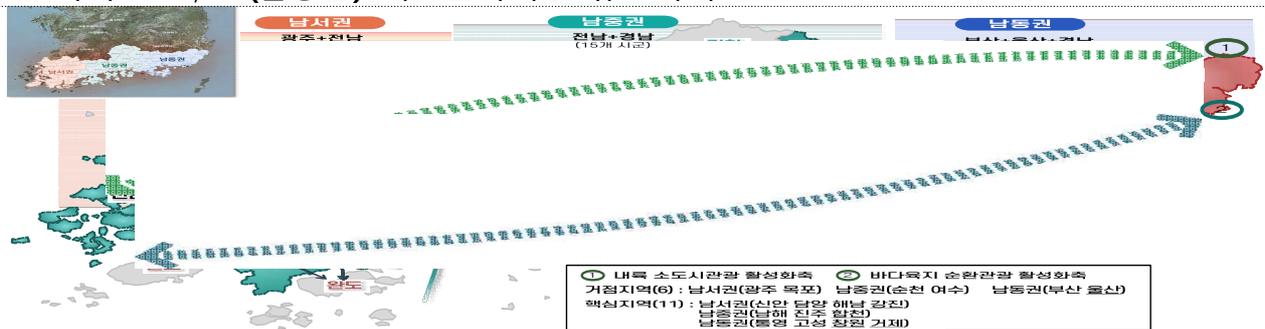


관광정원

- (지역상생형 관광개발 모델 창출) 민간 관광콘텐츠 정책연계 확대*, 지역RTO 관리체계 구축, 저이용공간 재생 등 지속가능 관광생태계 구축

* 관광벤처 기업, 지역 크리에이터 제안, 지역과 매칭하는 비즈니스모델 도입

* (소권역별 전략) ▲(남서권) 남도문화 예술지대 구축 ▲(남중권) 한국형 웰니스 관광 지대 형성, ▲(남동권) 해양문화체험 휴양지대 형성



○ (글로벌 루트연계 광역개발) 광역 교통망(철도·항공) 활용, 생태 웰빙 관광 루트 개발('25~'34년)

- (지속가능 관광개발) 포스트 코로나 관광개발 전략 마련('23년, 글로벌 컨설팅) 통해 전 국토의 관광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신규 개발 기본구상 추진('23년)

□ 지역관광 활성화 거점 확대

- (관광거점도시 확대) 지역의 문화콘텐츠 자산(음악, 예술, 해양레저, 스포츠)을 활용 한국 관광을 대표하는 관광매력 도시 육성을 위한 '관광거점도시*' 추가 선정 추진('24년~)

* 기존 부산, 강릉, 전주, 목포, 안동 5개 관광거점도시 '25년까지 사업 완료

- (지역 주도형 지역관광개발) 지역 주도적으로 관광콘텐츠 발굴 및 개발 계획을 수립, 지역 특화 주제·관광자원, 마케팅 등 바탕으로 입체적 관광개발 추진(계획공모형 관광개발 : '19~'21년 15개 지역 선정, '24년 추가 지원 추진)

구분	계획공모 1.0 (2022)	계획공모 2.0 (2024~)
주도	지자체	지자체+지역주민
지향가치	균형 개발, 지역관광 진흥	콘텐츠 스토리 관광(경험기반 여행)
추진주체	지자체	민관거버넌스
성과관리	문체부, 지자체	주민제안, 지역 전문가 컨설팅

- (노후 관광지 재생) 관광트렌드 변화 및 시설 노후화로 방문객이 감소한 관광지*의 시설·기능 개선을 통해 지역관광거점으로 재도약('24년~)

* 전국 225개 관광지 중 일부·전부 준공하여 운영중인 곳은 188개 이중 방문객이 감소중인 곳은 85개

- (국제기구 공인도시 지역관광 홍보) 국내 11개 유네스코 창의도시(UCCN)의 테마별 핵심 콘텐츠를 중심으로 체험·먹거리·볼거리·숙박을 연계한 복합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지원('24~'27년, 11개 도시)

* [예시] 영화 창의도시 부산 : 부산 국제영화제 방문→해수욕→해산물 미식체험 코스 개발 등

공예와 민속예술			디자인	영화	미식
 Icheon City of Crafts and Folk Art Member of the 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since 2010	 JINJU CITY OF CRAFTS AND FOLK ART Designated UNESCO Creative City in 2019	 가야 김해 Royal Capital of Gaya, Gimhae City of Crafts and Folk Art in 2021	 SEOUL City of Design Member of the 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since 2010	 BUSAN CITY OF FILM Designated UNESCO Creative City in 2014	 JEONJU City of Gastronomy 한바탕 전주 Member of the 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since 2012
이천	진주	김해	서울	부산	전주
문학		미디어아트	음악		
 창의도시 BUSAN City of Literature Designated UNESCO Creative City in 2017	 WONJU City of Literature Designated UNESCO Creative City in 2019	 GWANGJU City of Media Arts Designated UNESCO Creative City in 2014	 TONGYEONG CITY OF MUSIC 바다의망 통영	 Colorful DAEGU City of Music Designated UNESCO Creative City in 2017	
부천	원주	광주	통영	대구	

□ **코리아 둘레길(총연장 4,544km) 걷기여행 활성화로 지역관광 견인**

○ (코리아둘레길 완성) ‘대한민국을 재발견하며 함께 걷는 길’을 비전으로 ‘09년부터 추진해 온 ‘코리아둘레길*’ 전 구간 완성(‘23년)

* ‘21년 여행객/소비액 229만명/2,680억원(해파랑길, 남파랑길 등 2구간)
→ ‘27년 670만명/8,800억원(4개 전 구간) / ‘21 걷기여행실태조사)

< 코리아둘레길 현황 : 총 연장 4,544km 10개 광역/78개 기초지자체 >

해파랑길(동해안) 50개 코스, 750km (‘16년 개통)	+	남파랑길(남해안) 90개 코스, 1,470km (‘19년 개통)	+	서해랑길(서해안) 109개 코스, 1,800km (‘22.6월 개통)	+	DMZ 평화의 길 36개 코스, 524km (‘23. 4월 개통 예정)
--	---	--	---	---	---	--

- 전 구간 개통에 따른 ▲선포식(‘23.4월, 문체·행안부 공동), ▲노선별 추천코스 선정 ▲자원봉사단·지킴이·원정대 운영, ▲완보 인증 추진

○ (건강·자연에 특화) 건강과 걷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 확대*에 따라 걷기여행 쉽터**를 거점으로 힐링·생태형 테마 콘텐츠로 육성

* **걷기여행**은 코로나19 이후 선호하는 야외관광지 중 1순위(48.4%, ‘21 걷기여행 실태조사), 생활체육 중에서 가장 높은 경험률(걷기 48.5%, 등산 21.0% 순, ‘21 국민생활체육조사)

** 주요거점에 노선정보, 걷기여행 프로그램 등 제공(‘22년 15개소 → ‘27년 40개소)

	해파랑길 (3곳)	▲ 운영: 양양군, 강릉시, 울주군 ▲ 테마: 동해안 따라 길동무와 함께하는 체류형 걷기 관광
	남파랑길 (6곳)	▲ 운영: 통영시 고성군 남해군 순천시 완도군 해남군 ▲ 테마: 다이어트, 차(茶), 노르딕 등을 활용한 건강·웰빙 걷기 여행
	서해랑길 (6곳)	▲ 운영: 안산시 태안군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영광군 ▲ 테마: 람사르습지, 갯벌, 낙조 등의 생태체험 과 굴비, 풍천장어, 젓갈 등 지역 특유의 미식체험 이 어우러지는 걷기여행

○ (걷기여행 대표 브랜드화) 걷기여행 친화 환경을 조성하여 전국 800여개(‘21년 기준, 약 20,625km) 걷기여행길 활성화 선도

- 위치기반 통합플랫폼* 고도화(안전정보, 특화 프로그램·코스 예약 등), 걷기 동호회 참여 저탄소 여행 캠페인, 전 구간 다국어 안내체계 구축(~‘25년)

* 노선안내 정보제공, GPS 위치정보 기반의 따라걷기 등이 포함된 통합 안내 플랫폼

□ **교통체계 연계 관광자원 발굴 · 육성**

- ('관광도로' 지정·관리) 관광자원이 풍부한 도로를 '관광도로'로, 인근 지역을 '관광도로 정비지구'로 지정*하여 시설 구축** 및 건축 규제 완화·개발부담금 면제 등 각종 특례 부여(국토부)

* ▲관광도로 지정 「도로법」 개정, ▲관광도로 정비지구 지정 「해안내륙발전법」 개정

** 휴게시설, 쉼터, 전망대 조성 및 경관 정비, 공원, 문화시설 설치 등

- (가칭)사통팔달(四通八達) 국도 여행) 전 국토를 가로지르는 주요 국도와 인근 대표 관광자원을 촘촘하게 연계하는 관광동선 구축('24년~, 8개 노선)
 - (관광상품 개발) ▲노선·관광권역 설정(1단계), ▲대표 콘텐츠 선정(2단계), ▲상품운영 및 홍보마케팅(3단계), ▲권역별 협업(4단계) 등을 단계별 지원

■ (예시) 국도 2호선(전남 신안 ↔ 부산 중구) 관광권역 및 대표콘텐츠

국도 2호선 테마 : 남쪽 바닷길을 따라 다양한 지역문화와 생태자원이 어우러지는 국도(國道) 탐험

신안·목포	⇒ 강진, 장흥, 보성	⇒ 순천, 하동	⇒ 고성, 통영	⇒ 창원, 김해, 부산
영양강 하구, 퍼플섬, 목포 근대문화재 등	다산초당, 다도체험, 문학기행(천관산 등)	순천만 습지, 화개정터, 섬진강 하구 등	상족암, 공룡 유적, 동피랑, 미륵산 등	가야 유적, 주남저수지, 낙동강 하구 등

<활용방안> 국도를 따라 2~3시간 이동거리 내 대표 자연·생태·역사 관광자원간 연계망 구축 및 지역 간 협업 마케팅 등을 통해 숙박과 관광이 가능한 시범 관광상품 개발 운영, 지역 관광산업 자립기반 강화

- (팔도장터 관광열차 확대) 특색 있는 지역 전통시장과 관광지 연계* 열차 관광상품 운영 확대를 통해 지역 활력 증진(중기부)

- 체류형 여행 트렌드 및 야시장 콘텐츠 수요를 반영한 1박 2일 상품 '에코레일 열차' 추가 운영('23년~)

* (관광상품 사례 : 충북 단양 여행) 서울역-단양역-구인사-온달관광지-도담삼봉-단양구경시장-단양역-서울역

4-3

다양하고 특색 있는 관광콘텐츠 확충

◇ 농촌, 해양, 산림, 문화재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자원을 부처 협업을 바탕으로 육성, 지역의 독창적인 관광소재 개발

□ 농촌관광 활성화로 지역 활력 강화

- (농촌관광 다변화) 가족 등 소그룹 대상 동물·생태교육, 전통문화 체험 등 소규모 체험프로그램 개발('27년 320개, 누적)
 - 농촌마을 등 현장 주도로 지역의 음식·숙박·체험 등을 연계한 특색 있는 체류형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지원('27년 73개, 누적)
- (농촌관광 전문인력 확충) 청년 농촌여행 기획가를 육성*하고, 지역 거점대학(관광학과) 등과 연계하여 농촌관광 특화인력 양성 지원('24년~)
 - * 농촌여행 상품 전담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농촌여행 콘텐츠 기획·공모전 추진 등
- (소비자 접근성 제고) 국내 주요 행사·축제* 연계 외래객 대상 농촌 관광상품 개발 지원('23년~) 및 민간 플랫폼 활용 관광상품 판매 지원
 - *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광주세계김치축제, 강릉커피축제 등
- (제도개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야영장업 등록 관련 규제를 개선* 하는 한편, 지역 캠핑장 연계 농촌관광 상품 개발 지원('23년~)
 -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시설을 활용한 캠핑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추진

□ 생태관광을 통한 관광의 지속가능성 개선

- (생태관광 인프라) 지역 체류형 생태탐방문화 확대를 위해 생태 관광지역 내 에코촌*('22년 4개소 → '27년 누적 6개소), 국립공원 생태 탐방원('22년 8개소 → '27년 누적 12개소) 운영
 - * 생태관광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 환경친화적 소규모 숙박시설 조성 지원
 - 생태관광 전시·교육·정책 발굴 등 지역 생태관광 거점 기능을 갖춘 생태관광센터 지속 조성('22년 1개소 → '27년 누적 5개소)

- (취약계층 프로그램)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감정노동자·학교폭력 피해자 등 대상 생태관광 활용 치유프로그램 등 취약계층 참여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확대('22년 18,139명 → '27년 114,000명)

■ 취약계층 참여 생태관광프로그램



특수휠체어 활용 생태탐방

시각장애인 촉각 활용 생태체험

생태관광 치유프로그램(명상)

- (국립공원 디지털파크) 디지털 3D 공간정보 기반 국립공원 탐방로 로드·항공뷰, 가상현실(VR) 자연경관 및 동식물정보, 산행정보 등을 디지털 콘텐츠로 제공하여 생태관광 접근성 제고 및 참여 유도

* '27년까지 전 국립공원(22개소) 디지털파크 구축

- (지역발전 지원) 생태관광 주민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특산물 판매경로 개척(에코마마, 온라인 국립공원 마을장터) 등 지원

* 생태관광 사회적협동조합 육성지원사업~22년 7개소 설립 추진 및 지속적 운영 지원(~27년 7개소)

** 지역 생태관광 종사자 참여 '생태관광 디렉터 양성과정'('22년 260명 → '27년 500명, 누적)

□ 숲 관광 활성화

- (저탄소 숲길관광 프로그램) 숲채원,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시설, 산림문화자산, 명품 숲 등을 숲길로 연결*, 지역사회와 연계한 저탄소 숲길관광 프로그램** 개발·운영('23년~)

* 자연휴양림(숙박형) ⇔ 숲길(이동형) ⇔ 산림문화자산·명품숲 등(체류형)

** 대중교통 이용을 기반으로 지역의 숙박·음식점 등을 연계한 소규모 여행프로그램 개발

- (정보제공 확대) 숲길 통합플랫폼 구축('23년~)으로 100대 명산& 지역관광자원 연계 프로그램 등 산림관광 명소·코스 정보 제공*

* 숲길 유형, 난이도, 연계 노선, 지역 관광자원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자신에 맞는 숲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등산로 정보 제공 가능

□ 모두가 함께 즐기고 지역에 활력이 되는 문화유산 관광

- (문화유산 방문코스 개발·보급) 이야기 발굴, 콘텐츠 개발 등 문화유산 방문코스* (10개) 활성화 및 지자체·코레일·여행사 협업 관광상품화**

* 왕가의 길, 천년정신의 길, 가야 문명의 길, 관동 풍류의 길, 백제고도의 길, 산사의 길 등

** (예) '관동풍류 바다열차', '선교장 달빛 방문' : 해설사와 동행하며 전통예술 공연 관람

-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문화유산과 미디어·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체험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역관광자원으로 육성(매년 8~10개소)



조선왕릉문화제 (왕릉음악회)



문화재야행 (인천개항장문화재야행)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수원 화성)

- (유네스코 유산 활용 관광) 유무형의 유네스코 유산 활용 한국만의 특색 있는 지역관광상품 개발, 운영

- (축제 체험) 궁중문화축전(경복궁, 창덕궁, 종묘 등), 조선왕릉문화제(동구릉, 선정릉 등), 세계유산축전(수원화성, 백제역사유적지구) 등 세계 유산 활용 체험프로그램* 운영

* 수라간 시식공감, 경복궁 생과방 등 궁중음식·공연·전시 등이 결합된 체험 프로그램, 교육 전문가 워킹투어 등 운영 확대

- (관광상품화) 서원, 왕릉 등 유네스코 유산 중심 인근 관광자원 연계 및 탈춤, 모시짜기 등 무형유산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운영

* (예 : 안동 유네스코 유산 체험) 하회마을 - 안동 탈춤축제(탈춤 체험) - 도산서원

- (템플스테이) 사찰 체험 외에 유네스코 세계유산·호국불교·건축 등 한국 불교문화의 다양한 매력을 바탕으로 '테마형 템플스테이' 운영

* 사찰 전문 해설인력 운용, 내·외국인 체험단 유치, 인플루언서 초청 등 마케팅 강화

□ 해양·연안 관광자원 개발

- (대표 관광인프라 육성) 권역별 '국가해양정원' 조성 추진(6개소, '23년~), 거점형 '마리나항만*' 확대(기존6개소+신규4개소, '23년~)
 - * 레저선박 계류시설, 선박 보관·수리시설, 클럽하우스 등 **체험형 해양레저활동을 지원**
- (해양레저관광 기반시설 조성) '낙시복합타운'(3개소, '24년~), '해양치유센터'(4개소, 완도·태안·울진·고성(경남), '19~'25년) 신규 구축 및 '어촌체험휴양마을' 시설 고도화*(매년 4개소), 테마형 해수욕장** 운영 등 추진
 - * (예) 해수찜 시설, 비치마켓 시설, 스쿠버 시설, 친환경 캠핑 시설 등
 - ** 여름철 해수욕 위주 단순 관광 → 레저형, 힐링형, 자연생태형, 문화형 등 테마화
- 해양박물관·과학관 등 해양자원을 활용한 관광지를 조성하고, 관광활동 지원을 위해 방문자 센터·홍보관 등 운영*
 - *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갯벌의 보전·관리·홍보를 총괄할 통합센터 및 지역방문자센터 조성
- (섬 관광 활성화) 섬 정책 유관 부처별 입체적 정책 지원으로 '섬'을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
 - 유희시설 관광재생, 숙박시설 확충, 마을경관 개선, 차별화된 브랜드 구축 등을 지원하는 '가고 싶은 K-관광 섬*' 육성(문체부)
 - * 5개소 선정, 총사업비 506억원 ('23~'26년)
 - 요트 타고 전국 섬 일주가 가능하도록 소규모 계류장(50개소) 조성('26년~), 여객선 집안시설 현대화, 운임 할인 등 접근성 확대(해수부)
 - '섬의 날' 행사*를 통해 섬 진흥 방향성 제시 및 섬 관광 홍보, 서해5도 주거·이동여건 보장 등 종합발전 계획 지속 추진(행안부)
 - * '22년 3회 섬의 날 행사(8.8~14)의 경우 51개 기관 참여, 103,461명 방문

V. 추진 일정

세부 과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전략1. 세계인이 찾는 관광매력 국가 실현		
1-1. K-관광 매력의 대대적 확산으로 시장 다변화		
□ '한국방문의 해' 계기 관광 조기 회복 추진		
○K-컬처 연계 한국관광매력 확산	문체부	'23~'24년
○K-관광 국제로드쇼	문체부	'23~'27년
□ 인바운드 조속 복원 및 시장 다변화		
○인바운드 주력시장 집중 복원	문체부	'23~'24년
○동남아 시장 육성	문체부	'23~'27년
○중국 관광 재개 대비	문체부	'23~'24년
○구미주중동 개척	문체부	'23~'27년
□ 미래세대 타깃 한국관광 브랜드 가치 확산		
○해외광고 화제성 확보	문체부	'23~'27년
○메타버스 한국관광 영토 확장	문체부	'23~'27년
1-2. 관광과 K-컬처의 독보적·매력적 융합		
□ 예술자원 활용 K-아트 관광콘텐츠 확대		
○시각예술	문체부	'23~'27년
○공연예술	문체부	'23~'27년
□ 청와대 역사문화관광 클러스터		
○청와대 경내 관광랜드마크화	문체부	'23~'27년
○청와대 역사문화관광 클러스터	문체부	'23~'27년
○종합관광안내센터 사랑채	문체부	'23~'27년
□ 팬덤경제 기반 K-콘텐츠 관광 모델화		
○장르별 모델(케이팝, 영상미디어, 이스포츠)	문체부	'23~'27년
○민관협력	문체부	'23~'27년
□ 개별화되는 취향 맞춤형 테마관광 콘텐츠 발굴		
○스포츠, 음식여행	문체부	'23~'27년
□ 한국관광의 프리미엄화		
○고급 문화체험	문체부	'23~'27년
○골프관광 활성화	문체부	'23~'27년
○고급관광 기반조성	문체부	'23~'27년
	국토부	'23~'25년 (개발방안 마련)

세부 과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	------	------

1-3. 입국부터 출국까지 편리한 서비스 제공		
----------------------------------	--	--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관광객 출입국 편의 제고		
○ 동남아 비자개선	문체부 법무부	'23~'27년 '23년
○ K-ETA 개선	문체부 법무부	'23~'27년 '23~'25년
○ 체류 유도를 위한 비자제도 마련	법무부	'23년
<input type="checkbox"/> 국제공항·국제항 연계 한국관광 수요복원 추진		
○ 지방공항 입국 확대	문체부 국토부 법무부	'23~'27년 '23년 '23년
○ 환승관광 활성화	문체부 국토부 법무부	'23~'27년 '23~'27년 '23년
○ 크루즈	문체부, 해수부	'23~'27년
<input type="checkbox"/> 관광객 편의성 증진을 위한 교통체계 구축		
○ 수요응답형 관광지 교통서비스	문체부, 국토부	'23~'27년
○ 관광택시	문체부	'23~'27년
○ 관광지 항공교통	문체부 국토부	'23~'27년 '26~'27년
○ 대중교통체계 개선	문체부, 국토부	'23~'27년
<input type="checkbox"/> 체감도 높은 안내 및 쇼핑 서비스 강화		
○ 관광안내 1330 고도화, 외국어 오류표기 개선, 무인 다국어 안내 확대, 쇼핑 편의 제고 등	문체부	'23~'27년
○ 사후환급제도 개선	문체부, 기재부	'23~'27년

전략2. 현장과 함께 만드는 관광산업 혁신		
--------------------------------	--	--

2-1. 규제혁신을 통한 재도약 지원		
-----------------------------	--	--

<input type="checkbox"/> 관광사업자 부담 완화		
○ 호텔 등급평가제도 개선	문체부	'23~'24년
○ 호텔업 교통유발부담금 완화	국토부	'23~'25년
○ 외국인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	기재부	'23~'25년
○ 국제회의 기준 완화	문체부	'23~'27년
<input type="checkbox"/> 원활한 시장 진입을 위한 제도 개선		
○ 글램핑 소재 다양화	문체부	'23년

세부 과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유원시설 인허가의제 조항 신설	문체부	'23년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 제도화	문체부	'23~'25년
	○관광사업자 재창업 규제 완화	문체부	'23년
□	관광업계 인력 공급 촉진		
	○해외인력 고용 규제완화	문체부, 법무부	'23년
	○관광산업 맞춤형 고용지원	고용부	'23~'27년
	○구인-구직 연계 밀착지원	고용부	'23~'27년
□	업계 위기 극복 체계 마련		
	○관광현장 위기극복 지원체계 마련	문체부	'23~'27년
	○금융지원	문체부	'23~'27년
□	거버넌스 체계화로 관광정책 질적 강화		
	○지역관광전략회의 신설, 국가관광전략회의 지원 TF 설치	문체부	'23~'27년
2-2. 미래 관광산업 선도기반 구축			
□	관광업계 디지털 혁신 지원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문체부	'23~'27년
	○업종별 특화 지원(마이스업, 여행업)	문체부	'23~'27년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 경영 지원, 데이터 기반 마케팅 지원	문체부	'23~'27년
□	스마트관광 확산과 고도화		
	○스마트관광도시 확산	문체부	'23~'27년
	○스마트관광 R&D	문체부	'23~'27년
□	글로벌 관광 혁신기업 육성		
	○유니콘 관광기업 육성	문체부	'23~'27년
	○관광벤처 생태계 기반 강화	문체부	'23~'27년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확대	문체부	'23~'27년
	○투자펀드 조성	문체부	'23~'27년
	○원스톱 B2B 정책서비스	문체부	'23~'27년
□	현장밀착 맞춤형 인재양성·취업지원		
	○예비인력	문체부	'23~'27년
	○취업 연계 지원	문체부	'23~'27년
	○미래형 관광인재 육성	문체부	'23~'27년
2-3. 고성장 융복합 시장으로 영역 확장			
□	마이스(MICE) 산업 유치전략 다각화 및 경쟁력 강화		
	○유치전략 다각화	문체부	'23~'27년
	○개최지역 경쟁력 강화, 업계 역량강화 및 공정환경 조성	문체부	'23~'27년
□	웰니스·의료 관광 산업 육성		
	○웰니스·의료 융복합	문체부	'23~'27년

세부 과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 웰니스관광		문체부	'23~'27년
○ 의료관광		문체부, 외교부, 복지부, 법무부	'23~'27년
□ 복합리조트 조성 및 카지노업 활성화 지원			
○ 복합리조트 조성 지원		문체부	'23~'24년
○ 카지노업 활성화 지원		문체부	'23~'27년
전략3.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국내여행			
3-1. 국내여행 수요 촉진			
□ 공공-민간 연계 국내여행 인센티브 체계 구축			
○ 여행이음카드		문체부	'24~'27년
○ 근로자 휴가 지원 2.0		문체부	'24~'27년
○ 여행이있는주말, 여행가는 달		문체부	'23~'27년
□ 국민 여행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여행환경 조성			
○ 캠핑 인프라 확대		문체부	'23~'27년
○ 반려동물 동반여행		문체부	'23~'27년
○ 축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문체부	'24~'26년
3-2. 누구나 누리는 지속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 관광약자 프렌들리 新시장 육성			
○ 물리적 환경개선, 여행 연결망 구축, 전문 여행시장 육성 등		문체부	'23~'27년
□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 구축			
○ 저탄소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 친환경 여행문화 조성		문체부	'23~'27년
○ 지역주민 상생·공존, 지속가능한 관광 경영 확산		문체부	'23~'27년
3-3.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관광안전 확립			
□ 관광지 위험 감지·관리			
○ 관광안전 예보, 관광지 위험 감지 시스템 등		문체부	'23~'27년
□ 관광안전 다각적 강화			
○ 관광안전 R&D		문체부	'23~'27년
○ 안전매뉴얼 개선, 안전교육 강화, 안전점검 체계화 등		문체부, 외교부	'23~'27년
□ 관광안전 제도 개선			
○ 문화관광축제, 관광특구 안전관리 강화		문체부	'23~'25년
		행안부	'23~'27년

전략4. 더 자주 더 오래 머무는 지역관광시대 실현

4-1. 체류형 관광모델 개발로 지역경제 활력 강화

○워케이션	문체부, 농식품부, 해수부	'23~'27년
○야간관광	문체부	'23~'27년
□ 지역관광 활성화로 지방인구감소 문제 대응		
○관광협의체 구성	문체부	'23~'27년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콘텐츠 지원	문체부	'23~'27년
○생활관광	문체부, 농식품부, 행안부	'23~'27년

4-2. 독창적 매력이 있는 지역 관광자원 개발

□ 지역 특화 광역관광개발로 '하루 더 심이 있는 여행환경' 조성		
○K-관광 휴양벨트	문체부	'23~'27년
○글로벌 루트연계 광역개발	문체부	'23~'27년
□ 지역관광 활성화 거점 확대		
○관광거점도시 확대	문체부	'24~'27년
○지역 주도형 지역관광개발	문체부	'24~'27년
○노후 관광지 재생	문체부	'24~'27년
○국제기구 공인도시 지역관광 홍보	문체부	'24~'27년
□ 코리아둘레길 걷기여행 활성화로 지역관광 견인		
○코리아둘레길 완성, 걷기여행 대표 브랜드화 등	문체부	'23~'27년
□ 교통체계 연계 관광자원 발굴·육성		
○관광도로 지정·관리	국토부	'24~'27년
○사통팔달 국도 여행	문체부	'24~'27년
○팔도장터 관광열차 확대	중기부	'23~'27년

4-3. 다양하고 특색있는 관광콘텐츠 확충

○농촌관광 활성화로 지역 활력 강화	농식품부	'23~'27년
○생태관광을 통한 관광의 지속가능성 개선	환경부	'23~'27년
○숲 관광 활성화	산림청	'23~'27년
○모두가 함께 즐기고 지역에 활력이 되는 문화유산 관광	문체부, 문화재청	'23~'27년
○해양·연안 관광자원 개발	해수부	'23~'27년
○섬 관광 활성화	문체부	'23~'26년
	해수부	'23~'27년
	행안부	'23~'27년

부처별 추진계획

1. 외교부
2. 법무부
3. 행정안전부
4. 농림축산식품부
5. 보건복지부
6. 환경부
7. 국토교통부
8. 해양수산부
9. 고용노동부
10. 중소벤처기업부
11. 문화재청

[외교부] 재외공관 및 공공외교를 활용한 관광외교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 전세계 재외공관(167개) 및 한국관광 거점 공관(50개)*을 통해 매년 약 650회의 방한관광 홍보 실시
 - * 우리국민 방문객이 많은 국가와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미설치 지역 공관을 '한국관광 거점 공관(50개)'으로 지정
- 향후 소셜미디어의 전략적 활용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방한관광 홍보를 통해 한국 인지도 및 선호도 제고 필요

2 주요내용

- (재외공관 관광외교) △공관별 관광외교 담당관이 국가별 관광 정보 수집, △수교기념 및 주요외교계기 행사를 활용한 방한관광 홍보, △한국관광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방한관광 홍보 활성화
- (방한관광 홍보) △주한외교단 및 주한외국인 대상 국내 문화유산 탐방 및 지자체 홍보 행사 개최, △국내 세계유산 지역 중심으로 관광 프로그램 개발, △해외 인플루언서 방한 초청 사업을 통한 방한 관광 콘텐츠 제작 확산 △공공외교 SNS('KOREAZ') 등을 통한 방한관광 콘텐츠 홍보 등

3 향후 계획

- (유관기관 협업 강화) 연말 관광외교 실적 및 향후 계획 취합 후, 각국 관광동향 분석 및 지역별 맞춤형 관광전략 수립 지원
 - 외교부와 공관 영문 홈페이지의 배너를 활용해 우리 지자체의 관광, 자연, 문화유산 등을 홍보하는 한국의 지방 홍보 사업 추진 중
- (디지털 공공외교를 통한 방한관광 홍보 강화) 디지털 공공외교 플랫폼을 통한 방한관광 콘텐츠 홍보 강화 추진

1 현황

- 한류 확산 등 한국의 위상 변화에 발맞추고, 관광·콘텐츠산업 분야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비자제도 신설, 관광객 편의 제고를 위한 비자제도 완화 및 방한 인프라 확충 추진
- 해외 관광객의 증가로 호텔·숙박업계 인력 수요 증가 및 구인난 심화에 따른 해외인력 고용 규제 완화 추진

2 주요 내용

① 입국부터 출국까지 편리한 서비스 제공

- (비자신청센터 신설) 방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필리핀 등 관광수요가 많은 국가에 비자신청센터 추가 설치
- (단체전자비자 대상 확대)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일부 대상*에 한정 시행 중인 단체전자비자를 일반관광객까지 확대(*인센티브·수학여행단)
- (K-ETA 개선) 전자여행허가(K-ETA) 시스템 고도화로 외국인 단체관광객 편의 제고, 다국어 안내 서비스 확대[중국어(번체), 일본어 등]
- (체류 유도를 위한 비자제도 마련)
 - (K-컬처 연수비자 신설) 한류를 배우려는 해외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기관 등에서 K-콘텐츠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연수비자 신설
 - (가칭 디지털 노마드 비자 신설) 고소득 외국인을 대상으로 1~2년 장기체류하면서 일과 관광을 병행할 수 있는 워케이션 비자 신설
- (지방공항 입국 확대) 불법입국 방지를 전제로 동남아 3개국(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단체관광객 대상 무안공항 무비자 입국허가제도 추진
- (환승관광 활성화) 인천공항 입국 환승 관광 복원 추진
 -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일반 환승객 대상 무비자 입국제도 시행 추진

2 규제혁신을 통한 재도약

- (호텔업 외국인 고용규제 완화) 외국인 전문인력(E-7)의 호텔별 채용인원 확대 및 재외동포(F-4)의 인구감소지역 취업제한 완화 특례 시행
- (방문취업(H-2) 자격의 활동범위 확대)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취업 허용

3 향후 계획

- 필리핀 비자신청센터 신설, 단체전자비자 대상 확대('23. 하)
- K-ETA 시스템 개선('23. ~)
- K-컬처 연수비자 신설('23. 3월)
- 디지털 노마드 비자 신설('23. 하)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필요
- 무사증 입국허가 기준 마련 및 관계기관 통보('23. 1.)
- 무안공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허가제도 시행('23. 3.)
- 환승관광 재개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제도 시행 추진('23. 6.)
- 호텔업 외국인 고용규제 완화 시행('22. 12월)
- 방문취업(H-2) 활동범위 확대 관련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22. 12월)

1 현황 및 문제점

- 코로나19 이후 국내 관광객 수는 회복 추세이나, 관광 수요가 특정 인기 관광지에 집중되는 추세
 - ※ 국내여행 참가횟수(단위 : 만회) ('17) 285 ('18) 311 ('19) 344 ('20) 225 ('21) 245
 - ※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수(단위 : 만명, 각각 '19, '20, '21년)
서울(148, 47, 59), 제주(46, 21, 24) vs 전남(15, 9, 9), 강원(16, 9, 10)
- 관광의 방식이 다양화됨에 따라, 관광진흥을 위해 규제개선과 세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 필요
- 최근 인파가 집중되는 축제·지역에 대한 우려 증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관광진흥 필요성 증대
 - 주최자가 있는 축제·행사 위주로 관리됨에 따라, 주최자가 없는 축제·행사·인파 밀집지에 대한 관리 주체가 부재

2 주요내용

□ 전국 어디나 찾고 싶은 지역

- (접경지역 관광) 세계유일의 분단지역의 상징성과 지역별 우수한 생태·평화·역사 관광자원을 활용한 생태·평화 관광벨트 구축 추진
 - DMZ 인근의 주요 관광지를 연계하는 걷기여행길·자전거길* 조성 및 동서교통축 개선으로 체류형 관광을 확대하여 지역 활성화 도모
 - * 한탄강 주상절리길(걷기길, 128km), DMZ평화의 길(걷기길, 524km) 평화누리 자전거길(608km)
 - 접경지역 거점형 테마 관광지 개발* 등 관광컨텐츠를 다양화하고 민통선 출입간소화 및 안전시설 설치로 관광객 안전성, 편의성 증대
 - * 소양 호수권(춘천, 인제, 양구) 및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한탄강 등) 개발

- (섬 관광) 섬이 관광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실시, 서해5도에 대한 종합 발전계획 추진 등 섬 생활환경 개선
 - '섬의 날' 행사를 통해 섬 진흥 방향성 제시 및 섬 관광 전국적 홍보
 - * '22년 3회 섬의 날 행사(8.8~14)의 경우 51개 기관 참여, 103,461명 방문
 - 섬 마을단위 LPG 시설 구축, 서해5도 주거환경 및 이동여건 보장 등 범부처 종합 발전계획 지속 추진
- (인구소멸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실시, '유동인구'를 정책에 반영토록 검토
 - 관광 등에 따른 '유동인구'를 산출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유동인구 증대를 추진토록 지원

□ 관광진흥을 위한 규제개선과 세제 지원 추진

- (세제특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 추진 (~12월)
 - * 감면내용 : 취득세 50% (법정 감면 25% + 조례 감면 25% 限)
 - ※ 일몰기한을 '25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제출(10.12.)
- (규제개선) 지역 현장에서 발생하는 관광산업 관련 규제애로과제*를 지자체와 협조하여 지속 발굴하고 소관부처와는 적극 협의·개선함으로써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현장토론회, 현장협의회 등을 통해 중앙-지방 합동 규제개선 추진
 - * 해사시계(視界) 규제완화로 섬 관광 활성화(전남), 수륙양용버스 항해구역 확대(부산)

□ 언제, 어디에서나 안전한 관광

- (매뉴얼 개정)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와 행사에도 안전조치를 추진 하도록 하고, 인파관리 원칙에 따른 안전조치 사항 반영
 - 재난안전법 제66조의11 개정*에 따라, 적용범위(시기·시간·범위)를 규정
 - *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행사'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범위 확대 (행안위 계류중)
 - 매뉴얼상 △인파관리 기법 반영 △밀집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 △조치사항 및 점검항목 등 추가
- (합동점검) 다중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축제 및 연말연시 인파밀집 우려지역에 대한 선제적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강화
 - 지역축제 인파밀집사고 예방을 위한 자체 전수점검 및 합동 표본점검, 수능 후 인파밀집 예상지역에 대한 합동점검 실시

3 향후 계획

- 주최자 없는 행사 매뉴얼 개정 추진
- 재난안전법 등 개정 지원
- 섬·접경지역 등 소외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지원 실시
- 관광 관련 세제지원 과제 지속 발굴하여 개선 추진
- 지역 관광 관련 규제 애로과제 발굴·개선 및 중앙-지방 협의 지속

1 현황 및 문제점

- 농촌관광은 일상 힐링, 건강 등 새로운 여가 문화 확산 등으로 성장 추세였으나, 코로나19 발생으로 '20, '21년 국내외 농촌관광객수 급감
 - * 농촌관광객 수 : ('18) 1,237만명 → ('19) 1,307 → ('20) 656 → ('21) 731
- 다만, 건강·환경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으며, 저밀화 지역 선호 등으로 농촌관광에 대한 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
 - * 세계관광기구 UNWTO는 Tourism Barometer(2020)에서 코로나19 이후 '농촌, 자연, 건강 등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관광분야' 부상할 것으로 전망
- 농촌관광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농촌지역에 특화된 체험·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품질 및 상품접근성을 제고할 필요

2 주요내용

- **(농촌체험·관광상품 다변화)** 코로나 이후 관광트렌드에 대응, 농촌에 특화된 다양한 체험·관광상품 개발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가족, 친구 등 소그룹 대상 동물·생태교육, 전통문화 체험 등 소규모 체험프로그램 개발('27년 320개, 누적)
 - 농촌마을 등 현장 주도로 지역의 음식·숙박·체험 등을 연계한 특색 있는 체류형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지원('27년 73개, 누적)
- **(농촌관광 전문인력 확충)** 청년 농촌여행 기획가를 육성*하고, 지역 거점대학(관광학과) 등과 연계하여 농촌관광 특화인력 양성 지원('24년~)
 - * 농촌여행 상품 전담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농촌여행 콘텐츠 기획·공모전 추진 등
- **(소비자 접근성 제고)** 국내외 관광객 유입 확대 및 지속적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대표상품을 발굴하고, 판매·홍보 채널 확충(계속)

- 외국인인 선호하는 국내 주요 행사·축제 개최 시 방한 관광객이 농촌관광 코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 연계상품 개발 지원(23년~)
 - *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광주세계김치축제, 강릉커피축제 등
- 국내외 여행 전문 플랫폼, 여행사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우수 농촌관광 상품 판매를 위한 민간 플랫폼 활용 확대 지원
- (일상공간 연계 체류인구 확대) 민간·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일상공간과 연계한 장기체류 유도 등으로 관계인구 확대 등 농촌지역 활력 제고
 - 기업의 지속가능(ESG)경영 및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하여 원격근무를 농촌 관광수요로 유도, 빈집을 활용한 위케이션 활성화 방안 검토
 - 도시 학생들의 '농촌유학(6개월이상 체류)'을 통한 농촌 생활·교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농촌지역의 다양한 관계인구 확대(계속)
 - 귀농귀촌인 대상 '농촌에서 살아보기' 등 지역정착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관계인구를 정주인구로, 안정적 정착 유도(계속)
- (현장 애로해소) 캠핑 등을 농촌관광 콘텐츠로 활성화하기 위해 야영장업 등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지역 캠핑장 연계 농촌관광 상품 개발도 지원(23년~)
 -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공동이용시설을 활용한 소규모 캠핑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규제완화 추진

3 향후 계획

- 농촌관광 특화 콘텐츠 개발, 소비자접근성 제고 등을 위한 판매 채널 확충 등 관련 사업 지속 추진(계속)
- 농촌관광 전문인력 육성 등 신규사업 구체화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친 후(23년), '24년도 예산확보 및 신규사업(시범) 추진
- 관광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 애로해소(야영장업 등록 등)를 위해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후 세부 개선안을 마련, 관련 법령 개정 등 추진(23년~)

1 배경 및 필요성

- (높은 경제적 효과) 외국인환자 유치는 쇼핑·관광, 일자리 창출 등 연관 산업에 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분야

* ('19년 경제적 효과) 생산유발액 5조 4,981억원, 부가가치유발액 2조 5,678억원, 취업유발인원 4만 4,346명 ('19년 산업연구원)

- (코로나19 회복세) 국내외적 코로나19 안정화로 세계 외국인 환자 유치시장은 '26년까지 연평균 29.2% 증가 전망('21년 Arizton)

- 코로나19 확산으로 급감*한 방한 외국인환자 점차 회복 예상

* '21년 외국인 환자(14.6만명)는 가장 많은 환자가 방문한 '19년(49.7만명)의 29%

< 2009~2021년 외국인환자 수 (단위: 명, %) >

구분	2009	2011	2013	2015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가율
환자수*	60,201	122,297	211,218	296,889	321,574	378,967	497,464	117,069	145,842	7.7%
(증감률)	(35.9)	(49.5)	(32.5)	(11.4)	(△11.7)	(17.8)	(31.3)	(△76.5)	(24.6)	

* 실환자 기준 : 복수 진료를 포함하지 않고 환산한 실제 환자 수/ 증감률 : 전년대비 환자 증감률

2 주요내용

□ 외국인 환자 유치 기반 강화

- (중증환자 등 유치 확대) 주요 유치국의 중증 질환 현황 및 국내 치료 현황 등 시장조사 기반 유치전략* 수립

* 주요 유치국의 보건 환경(주요 질환 등)을 고려, 중점 유치 국가별 다빈도 질환 선정

- 국내 우수 의료기술을 활용한 중증 질환 등 치료사례 공유 및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정보 확산

- (국비환자 유치 확대) 정부간 협력을 바탕으로 국비환자 송출 대상 국가 지정 및 환자 위탁 비중 확대

* (송출국) 아랍에미리트('11년~), 쿠웨이트('16년~), 카타르('18년~), 바레인('21년~)

- (지역특화 유치기반 조성) 지역의 의료·관광 인프라 등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별 차별화된 유치모델 개발 지원
 - 2~3년 장기 지원을 통해 지역 유치 기반 강화 실질적 기여
 - * ('22년 지원 지자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충북 총 6개
- (사전 사후관리 활성화) ICT 기반 비대면 원격협진 사전·사후관리* 사업 추진을 통해 환자유치 채널 다변화
 - 한국 방문 前 의료 상담 및 귀국 後 진료 경과 확인 등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 제공
- (의료광고 가능 지역 확대)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가능 지역을 일정요건 갖춘 관광특구까지 확대하여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현행	변경('22.12.22~)
외국인전용판매장, 보세판매장, 지정면세점(제주), 국제공항, 무역항	(추가) 외국인관광객 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관광특구 중 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지역

□ **한국 의료 신뢰도 제고 및 환자 권익·편익 증진**

- (평가 인증제 개선) 인증 유효기간 확대(2→4년), 조건부 인증 도입, 평가항목 개선 등 통해 외국인환자 우수 진료기관 확대
- (시장 건전화) 온·오프라인 불법 유치행위 근절 및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
 - (온·오프라인 점검) 온라인 신고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영문버전 개발 및 모바일 버전 활성화), 불법 유치기관에 대한 지자체 현장 점검 지원
 - (신고포상금 활성화) 포상 비율 상향 (벌금 확정액의 10→30%)
- (상담센터 운영)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인천, 서울)를 통한 한국 의료 이용 원스톱 서비스(5개 국어, 1577-7129) 제공
 - * (주요기능) 한국의료서비스 이용안내, 의료분쟁예방, 불법 스토커 상담 등
- (미용 성형 부가세 환급) 미용 성형 부가가치세 환급('22년 만료) 연장*을 통해 진료비 인하 및 시장 투명성 제고
 - * 환급 기한을 '25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제출(기재부, '22.9월)

1 배경 및 필요성

- (배경) 생태계 우수지역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생태관광의 중요성 확대
- (필요성)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확보를 위한 다각적 지원 필요
 - 생태관광 인프라 조성으로 지역체류형 생태탐방문화 확대
 - 생태관광 활용 취약계층 지원, 온라인 탐방 서비스 확대 등으로 국민 생태복지 실현
 -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 소득 창출로 생태관광의 안정적 운영 확보

2 추진현황 및 계획

- (인프라 조성) 지역 생태관광 거점 역할 수행 및 체류형 생태탐방문화 확대를 위한 생태관광 인프라 조성
 - 국립공원 내 생태관광 체험 및 교육, 숙박 등의 기능을 하는 생태탐방원('22년 8개소 → '27년 누적 12개소) 조성으로 지역 생태관광 활성화

■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생태관광의 거점시설로서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국립공원에서 국민들에게 생태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하는 생태체험 종합시설

- 북한산, 지리산, 소백산, 설악산, 한려해상, 가야산, 무등산, 내장산 등 8개소 운영 중



지리산생태탐방원



한려해상생태탐방원



가야산생태탐방원



내장산생태탐방원

- 생태관광 전시·교육·정책 발굴 등 지역 생태관광 거점 역할을 하는 생태관광센터 조성(22년 1개소 → '27년 누적 5개소)
 - 환경친화적 에코촌(22년 4개소 → '27년 누적 6개소) 조성으로 생태관광지역 내 숙박시설 부족 문제 해결 및 지역체류형 탐방문화 확대
 - (취약계층 참여) 장애인, 감정노동자 등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생태복지 실현 및 사회 기여 증진
 - 특수휠체어 활용 자연 체험, 수어해설, 오감 활용 생태탐방 등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운영으로 생태관광 체험 기회 제공
 - 코로나19 의료진, 소방관, 감정노동자, 학교폭력 피해자 등 대상 자연 명상, 별빛 감상 등의 생태관광 활용 치유프로그램 운영
- * 취약계층 참여 프로그램 '22년 18,139명 → '27년 114,000명으로 참여 확대

■ (취약계층 참여 생태관광프로그램)



특수휠체어 활용 생태탐방프로그램



시각장애인 대상 촉각 활용 생태체험

생태관광 활용 치유프로그램 (자연 명상)

- (국립공원 디지털파크) 국립공원 디지털 3D 공간정보 기반, 탐방로 로드·항공뷰 및 주요 경관을 가상현실(VR)로 제공하여 국립공원 우수 생태계 간접 체험 기회 제공('27년까지 전 국립공원 22개소 디지털파크 구축)
- (지역발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생태관광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생태관광 자원을 활용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육성·운영을 지원하여 지역 주민의 경제적 자립기반 확보

* 생태관광 사회적협동조합 육성지원사업(~22년, 7개소 설립) 추진 및 지속적 운영 지원

- 지역 생태관광 전문 인력인 '생태관광 디렉터' 양성('18년~, '27년 누적 558명)으로 생태관광 품질 제고 및 안정적인 생태관광 운영 확보
- 국립공원 특산품 온라인 판매처 '국립공원 마을장터' 및 생태관광 지역 특산품 판매 프로그램 '에코마마' 운영으로 지역 특산품 판매경로 개척

3 홍보 계획

- (국민참여) 생태관광 국민 인지도 제고 및 생태관광 정책 홍보를 위한 대국민 축제 '생태관광 페스티벌'의 지속적 개최
- (미래세대 인식 개선) MZ세대 맞춤형 홍보 및 SNS 등 온라인 홍보 활성화를 위한 청년 생태관광 홍보 서포터즈 '영리더스클럽' 운영
- (콘텐츠 확보) 생태관광 참여 유도 및 우수 홍보 자원 확보를 위한 '생태 관광지역 사진공모전' 개최 확대
- (온라인 홍보) 카드뉴스 등 홍보 콘텐츠 월별 제작 및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 및 SNS 등 배포 지속적 추진

■ (생태관광 홍보 카드뉴스)



[국토교통부]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및 관광자원 개발 지원

1 현황 및 문제점

- 코로나-19로 인한 여객 감소, 환승객 무비자 제도 중단(법무부)등으로 지방공항 방문객·수입이 감소하여 지역경제 활력 저하
- 관광객 편의성 증진을 위해 주요 교통거점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이동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확충 필요성 제기
- '경관도로'로 지정을 통해 도로 정비사업을 일부 추진한 바 있으나, 주변 지역개발과 연계 등이 부족하여 관광자원 개발에 한계
 - * 경관도로 52선 선정 및 정비 기본계획 수립('11), 경관쉼터 등 조성('16~)
- 4~5성급 호텔은 일반 숙박시설 대비 교통유발계수가 높아(최대 2.25배) 교통유발부담금 등 관광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
 - * (교통유발계수) 4.5성 호텔, 가족호텔, 콘도 : 2.62 / 일반 숙박시설 : 1.16

2 주요 내용

- (항공)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공항을 인바운드 시범공항으로 지정하고, 투어상품 개발 등 환승관광 활성화
 - (인바운드 시범공항)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협의를 통해 일부 지방공항을 시범공항으로 지정하여 각종 인센티브* 부여
 - * 국제선 신설 지원, 입국 환대기간(항공권숙박 할인 등) 운영, 교통확충(관광택시, 셔틀버스) 등
 - (환승관광) 코로나-19 이전 운영한 무료 환승투어를 개선*하고, 체류시간별 스탑오버 상품 개발** 및 홍보를 통한 인바운드 유도
 - * 기존 참여 실적이 높은 코스(경북공·용궁사 등) 집중 운영, 신규코스(청와대 등) 시범운영
 - ** 인천-공항주변·송도(24시간) / 인천-청와대 등 수도권(1박2일) / 인천-강원·전북 등(2박3일)
 - (고급관광) 아울러 외국인 고급 관광 기반 조성을 위해 인천공항 내 비즈니스 항공기 전용터미널 신설 추진

- (대중교통) 주요거점-관광지 간 대중교통체계 개선, 다양한 이동수요 충족을 위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확대 및 UAM 도입 추진
 - (대중교통체계) 주요 교통거점(공항, KTX역, 터미널 등)에서 관광지를 경유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체계 개선(지자체 협조)
 - (수요응답형 교통) 실시간 수요 반영·운영이 가능한 교통서비스를 신도시·심야시간대 등 대중교통 불편지역으로 확대(여객자동차법 개정)
 - * 이외 경우에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수요응답형 서비스 제공 추진(모빌리티법 제정)
 - (도심항공교통) 규제특례 도입(UAM법 제정), 업계 시험·실증 지원(그랜드챌린지)등을 통해 UAM 상용화 및 안정적인 산업기반 구축
- (관광자원) 인근 관광자원, 지역개발·인근산업 연계 계획 등을 고려하여 '관광도로'를 지정(도로법 개정)하고 도로구역내 정비사업* 실시
 - * 휴게시설·쉼터·전망대 등 조성(국토부 기존사업 활용) 및 정비 실시(도로관리청)
 - 관광도로에서 일정 거리 내 지역을 '관광도로 정비지구'로 지정하여 건축규제 완화, 개발부담금 면제 등 특례 부여(해안내륙발전법 개정)
 - * (사업내용) 경관 정비, 공원시설, 숙박 등 관광특구, 공연장·박물관 등 문화시설 설치 등
- (규제혁신)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교통유발 실태조사 등을 통한 교통유발 계수 조정 검토(연구용역 추진)

3 향후 계획

- 인바운드 시범공항 지정('23), 환승관광 프로그램 운영(스탑오버 '22.4분기~, 무료 환승투어 '23~), 비즈니스 전용터미널 신설('28)
- 수요응답형 교통 확대·관광도로 제도 법제화('23.6), UAM법 시행('23), UAM 실증프로그램 개시('23.下), 관광도로 지자체 공모('24)
- 호텔업 등 교통유발 실태조사 관련 예산확보('23) 및 용역 추진('24)

1 추진배경

- 코로나19 이후 자연친화적 레저활동이나 야외·청정 관광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등 관광트렌드 및 레저수요 변화
 - 특히 대표적인 휴식과 치유의 공간인 ‘바다’가 여행장소 1순위*로 선정되는 등 해양관광에 대한 선호가 높은 상황
- * 코로나19에 따른 국내여행 행태('21.1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다만, 정부에서 해양레저관광 기초 인프라 구축, 산업 관련 법·제도 마련 중이나 증가하는 해양레저관광 수요 대응에는 한계
 - * 현재 마리나 계류시설의 요트·보트 수용능력은 8.3%에 불과('21:선박 34,000척), 향후 추가 개발이 없을 경우 '29년에는 5.8%까지 하락할 전망
 - 또한 해외인지도 있는 관광지나 국제적 수준의 관광 인프라 부족

→ 코로나19 이후 관광트렌드 변화에 따른 기회를 포착하여 국민에게 다양한 여가·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지역에는 새로운 성장엔진을 제공하며, 기업과 함께 해양레저관광 산업의 회복을 도모

2 주요내용

① 모든 국민이 함께 즐기는 해양관광

- (인프라 확충) 융·복합 해양레저관광 서비스 제공 거점인 해양레저 관광도시를 조성하고 거점형 마리나를 확충하여 레저활동 지원
 -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잠재적 수요 등을 고려하여 최적지를 선정하고,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민간 주도의 관광자원 개발 여건 마련
- * ①마스터플랜 수립('23~'24), ②입지선정, 계획수립, 타당성조사('24~'25), ③설계·공사 착수('26~)

- (거점형 marina) 레저선박 계류시설, 선박 보관·수리시설, 클럽하우스 등 체험형 해양레저활동을 지원하는 거점 시설을 10개소로 확충
 - * (기존) 울진, 창원, 여수, 안산, 부산 등 6개소 → (확충) 연안 광역지자체에 4개소 추가
- (콘텐츠 다변화) 대표적 해양관광 활동인 해수욕과 낚시의 즐길 거리를 확대하여 해양관광 수요 대응 및 활동 다변화
 - (해수욕장) 테마형 해수욕장 운영을 통해 여름철 해수욕 위주의 단순 관광 ⇒ 연중 해양관광을 즐길 수 있는 시작점으로 전환
 - * 레저형, 힐링형, 자연생태형, 향토체험형, 문화형 등
 - (낚시) 낚시와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이 동시에 가능한 낚시 복합타운(3개소) 및 체험형 낚시교육을 실시하는 낚시학교(1개소) 조성
- (접근성 강화) 지역 축제와 해양스포츠대회를 연계*하여 관광-레저 복합체험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트렌드에 따른 체험종목 다양화
 - * (사례) 보령머드축제-아시안컵 요트대회, 통영한산대첩축제-청소년리갯타대회 연계 등
- 아울러 분산된 관광 정보 통합 및 사용자 선호분석 등에 기반한 맞춤형 해양관광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 현재 운영중인 '바다여행 일정만들기'의 콘텐츠 확대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한 기능 개선

2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해양관광

- (marina) marina 비즈센터와 연계하여 레저선박의 제조-수리-판매 전반을 아우르는 산업 생태계 조성, 연관산업 단지화로 시너지 창출
 - 수도권 인근에 marina 비즈센터를 신설하고, 지역에는 현재 비즈센터를 조성 중인 부산·통영의 배후단지에 산업클러스터 조성
 - * (부산 marina비즈센터) '19~'25, 474억원 / (통영 marina비즈센터) 19~'24, 190억원
- (크루즈) 크루즈선 운항 정상화('22.10)에 따라 크루즈 인프라* 및 관광 인프라 복구** 등을 추진하고 적극적인 포트세일즈 추진
 - * 터미널 설비 정비, CIQ 시설·인력 확보 / ** 콘텐츠 정비, 가이드·관광버스 운영 복구

- (해양치유) 자원 분포현황 조사 및 효능발현 메커니즘 분석을 통해 해양치유자원의 관리·활용 기반 마련('22~), 해양치유센터* 적기 준공
 - * 전남 완도('19~'23), 충남 태안('20~'24), 경북 울진('20~'25), 경남 고성('20~'25)
- (창업지원) 대학생·예비/신규 창업자 대상 아이디어 및 우수 해양 관광상품을 발굴하여 컨설팅, 자금지원, 판로개척 등 사업화 지원

3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해양관광

- (관광기반) 어촌의 기초 인프라를 개선하여 관광지 기반을 마련* 하고,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체험 콘텐츠 강화 및 시설 고도화를 지원**
 - * (해상교통 개선) 선착장 등 여객선 접안시설, 대합실·화장실 등 여객 편의시설 개선 (관광 콘텐츠) 여가복합공간, 어촌체험·레저체험시설, 트레킹코스 등 관광시설 조성·개선
 - ** 예 : 해수찜 시설, 비치마켓 시설, 스쿠버 시설, 친환경 캠핑 시설 등
- (관광자원) 해양정원, 해양박물관·과학관 등 해양자원을 활용한 관광지를 조성*하고, 관광활동 지원을 위해 방문자 센터·홍보관 등 운영**
 - * 권역별 해양정원센터,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과학관, 해양생태과학관 등
 - **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갯벌의 보전·관리·홍보를 총괄할 통합센터 및 지역방문자센터 조성

- 또한 갯벌관광 진흥을 위해 뛰어난 경관을 지닌 지역을 갯벌생태마을로 지정·운영하고 갯벌생태계 홍보·교육 등을 위한 갯벌생태해설사 육성('24~)
- (섬 관광) 요트 타고 전국 섬 일주가 가능하도록 소규모 계류장(50개소)을 조성('26~)하고 여객선 접안시설 현대화, 운임 할인 등으로 접근성 확대

3 향후 계획

- (계획수립) 제2차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23~'27), 제2차 마리나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5~'29) 수립 및 발표
 - * 법정계획 외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마스터플랜('23~'24), 마리나산업 활성화 전략 수립('23)
- (법령정비) 마리나 서비스 다변화 및 마리나 조성절차 합리화를 위한 「마리나항만법」 개정 및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1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관광산업 업황이 호전되어 인력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재정여건 등이 아직 회복되지 못함에 따라 인력 채용에 어려움 발생
 - * (숙박업[호텔+콘도] 사례) 종사자수가 코로나19 이전 대비 19.6% 감소:
(19.6) 106,504 → (22.6) 85,633(▲20,871명, 19.6%) <출처: 문화체육관광 고용동향>
-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관련 기업, 종사자들의 고용·생계 안정화 및 디지털 전환 요구 등 관광산업 변화에 대응 필요

2 주요내용

- ① (관광산업 맞춤형 고용지원) 자치단체가 지역·산업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여 제안하면 선정·지원하는 공모사업 추진
 - (경력직 재고용 촉진) 관광·콘텐츠산업 관련업종* 기업이 30~40대 경력직을 채용할 수 있도록 채용장려금 지원
 -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외국인전용카지노 등
 - (기술인력 양성) 가상·증강현실, 메타버스 등 신기술 적용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한 인력양성, 신규 관광프로그램 개발인력 채용지원
 - (취업지원센터 운영) 관광산업 관련 기업·종사자 취업지원을 위한 연령·직무별 맞춤형 상담, 기업수요를 반영한 직무 프로그램 등 제공
- ② (구인·구직 연계 밀착지원) 여행·관광숙박업 등 인력난을 겪는 지역의 기업에 대하여 구인애로 유형별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업도약보장패키지)

☞ 센터 전담자가 디지털 기업지도 등을 활용하여 데이터 기반 분석 후 현장에서 적극적 진단 및 컨설팅, 연계 지원* 실시

* 고용부 및 관계부처의 인사·노무 컨설팅, 산업안전, 인프라·환경 개선, 인지도 제고 등

< 단계별 지원 내용 >



③ (외국인력 고용규제 완화) 호텔·콘도업을 포함한 숙박업 전체에 방문취업동포(H-2) 고용 허용*을 통해 업계 인력난 해소 지원

* 방문취업동포(H-2) 고용은 호텔업의 경우 1~3성 관광호텔에만 허용되며, 콘도업의 경우 허용되고 있지 않음

3 향후 계획

○ (관광산업 맞춤형 고용지원) 관련 업종이 밀집한 자치단체가 적극 참여하여, 사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

* (향후일정) 사업공모(22.12월) → 심사·선정(23.1월) → 협약체결 및 사업실시(23.2월~)

○ (구인·구직 연계 밀착지원) 현재 시범 운영* 중(22.8월~, 9개센터 운영)인 기업도약보장패키지를 '23년 본사업으로 확대 추진

* 현재 관광 관련 업종 중에는 서울고용센터(여행업종)에서 시범 운영 중

○ (외국인력 고용규제 완화) 방문취업동포(H-2) 고용허용 업종 네거티브 전환 시행(23.1.1.~)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관광 활성화 제고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코로나19로 인해 고객 방문이 줄어든 전통시장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열차 연계 관광상품*을 운영
 - * 전용열차(무궁화호)를 이용하여 전통시장에서 장도 보고 지역 관광지도 함께 여행하는 관광상품
- (문제점)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지역 활력 증진하기 위해서는 수혜지역 및 혜택 확대 필요

2 주요내용

- 정부와 지자체 사업 연계(공모)를 통해 전통시장 관광 상품 확대 운영
 - (전용열차 이용상품) 팔도장터 관광열차 전용열차(무궁화호)를 이용하여 시장별 희망일정을 고려한 전용열차 상품 운영
 - (정기열차 상품) 시장의 지속적 방문요구에 대비, 운영시장 및 일정 따라 정기열차 및 지역열차를 선별적으로 이용
 - (1박2일 상품) 최근 트렌드인 체류형 일정 반영 및 장거리 위치시장 혹은 야시장 운영시장의 콘텐츠 활용을 위한 1박 2일 상품 추가 운영

현재 (2022년)			변경 (2023년)				
열차	팔도장터 관광열차		열차	팔도장터 관광열차		에코레일열차 (자전거차)	
	8량	496석		8량	496석	4량(객차)	256석

3 향후 계획

- (사업공모) 사업 참여 희망하는 지자체 모집 (~'22.11.)
- (사업선정) 사업 규모, 전통시장, 관광지, 희망 시기 등을 고려하여 연계 가능한 지자체 선정 (~'22.12.)
- (사업시행) 관광전용열차 운영계획 수립 및 개시 ('23.1.)

1 현황 및 문제점

-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와 연계한 **활용프로그램** 개발·운영 중
 -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20년~), 궁능활용사업, 세계유산 축전 및 미디어아트 등을 통해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 확산에 기여
 - 지역문화유산 **활용프로그램** 지속 개발·확대 운영 중
 - * 생생문화재('08년~), 향교·서원문화재 활용('14년~), 문화재 야행('16년~), 전통산사문화재 활용('17년~), 고택·종갓집 활용('20년~)
- 그간 문화유산 활용사업의 다양한 양적 성장에 비해 관광상품화 등 질적 도약 필요한 시기

2 추진내용

- (문화유산 방문코스 개발·보급) 이야기 발굴, 콘텐츠 개발 등 문화유산 방문코스*(10개) 활성화 및 지자체, 코레일, 여행사와 협업으로 관광상품화** 등 차별화된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 * 전국 주요 문화유산과 지역 명소 75개를 10개로 묶은 방문코스(왕가의 길, 천년정신의 길, 가야 문명의 길, 관동 풍류의 길, 백제고도의 길, 산사의 길, 서원의 길 등)
 - ** (예) '관동풍류 바다열차', '선교장 달빛 방문': 해설사와 동행하며 전통예술 공연 관람
- (대표 문화유산 활용 축전) 궁중문화축전(경복궁, 창덕궁, 종묘 등), 조선왕릉문화제(동구릉, 선정릉 등), 세계유산축전(수원화성, 백제역사유적지구) 등 대표 문화유산 활용 체험프로그램 운영

- 수라간 시식공감, 경복궁 생과방 등 궁중음식·공연·전시 등이 결합된 체험프로그램, 교육·전문가 워킹투어 등 운영 확대
 - (지역의 대표 문화유산 발굴·육성) 향교·고택·산사 등 지역에서 잠자는 문화유산을 체험, 답사, 공연, 전시 등으로 콘텐츠화하고 문화재야행을 통해 지역의 거점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관광자원화 추진('23년 410개소)
 -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문화유산과 미디어·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체험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역관광자원으로 육성(매년 8~10개소)
- * ('23년) 수원화성, 강릉 대도호부관아, 고창 고인돌유적, 익산 미륵사지, 공주 공산성, 부여 부소산성, 함안 말이산고분군, 경주 대릉원지구

3

향후 계획

- 문화유산 방문코스 개발·보급(계속)
- 대표 문화유산 활용 체험프로그램 운영(계속)
- 지역의 대표 문화유산 발굴·육성(계속)
- 문화유산 미디어아트(계속)